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 명 사 상 만 세 !

로동신문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240호 【루계 제25749호】 주체106(2017)년 8월 28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창립 90돐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의 승리봉을 향한 자력갱생대진군의 장엄한 투쟁에서 백두산청년대장국의 기상과 위용이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인민과 청년들은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창립 9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주체혁명위업수행과 청년운동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결성은 청년사업으로 혁명활동을 시작하시고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청년중시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다.

력사의 이날과 더불어 《ㅌ. ㄷ》로부터 시작된 조선청년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진하게 되였으며 혁명의 전위투사로 자라난 우리 청년들은 조국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고 조국수호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영웅청년대군, 명장대군의 용맹을 떨치며 승리와 영광의 한길만을 걸어올수 있었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창립 90돐기념 중앙보고회가 27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장은 력사상 처음으로 청년중시사상을 내놓으시고 우리 청년들을 혁명의 강력한 전위대오,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억세게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정력적인 령도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새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정으로 설레이고있었다.

보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정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김수길동지, 전광호 내각부총리,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판게부문, 청년동맹일군들, 청년학생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보고회는 시작되였다.

보고를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찬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당중앙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룬 강철의 청년대군이 있기에 백두산청년강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 확신을 깊이 간직하였다.

보고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청년운동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끊임없는 강화발전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의가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중앙보고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조국해방전쟁승리 64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룡산당 《로씨아의 룡산주의자들》 중앙위원회 위원장, 마자르로동당 위원장, 체스꼬룡산당-21 중앙위원회 총비서,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 민주콩고룡산당 총비서가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또한 슬로벤스꼬룡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브라질로동당 국제비서,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공동리사장,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를 비롯하여 중국, 인디아, 일본, 도이췰란드, 로므니아, 로씨아, 벨가리아, 앨바루씨, 스위스, 슬로베니아, 프랑스, 폴스까, 이슬란드, 브라질, 에짜도르의 정계, 사회계,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룡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조국해방전쟁승리 64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력사적승리를 이룩한 7월 27일은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자랑스러운 혁명적명절이라고 지적하였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세기를 이어온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백승을 떨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전대미문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절세위인들의 령도아래 승리떨쳐온 조선청년운동

백두산천출위인들의 청년중시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청년운동사가 집대성되어있는 청년운동사적관을 참관한 외국인들이 격동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수리아 바아스소년선봉대 기술, 공보 및 대외관계부장 왓다흐 싸와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소년운동강화발전과정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청년운동사적관을 참관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청소년들을 친어버이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령도자각하의 위인상에 감동을 금할수 없다.

사적관에 대한 참관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각하께서 청년동맹조직과 소년단조직에 얼마나 크나큰 관심을 돌리고계시는가를 가슴깊이 절감하였다.

선군정치연구 네팔묻학연단대표단 단장 총고리 바로띠는 감상록에 위대한 령도자들의 손길아래 빛나는 위훈을 창조해나가는 조선청년들의 투쟁정신을 깊이 절감하였다. 우리들은 이곳에서 많은것을 배우고 커다란 힘과 용기를 얻게 되였다고 썼다.

로씨아련방룡산당 연해변강위원회 제1비서 아나똘리 돌카체브는 조선청년들은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당과 수령이 안겨주는 과업이라면 기어이 절사판쳘하는 조선청년들의 높은 정신세계에 머리를 숙이게 된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과 믿음에 무한히 고무된 조선청년들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였다.

조선청년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치고있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청년중시정치와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는 조선의 새 세대들처럼 행복한 청년들은 이 세상에 없다.

로씨아련방 베넨룡산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율라지미르 이싸꼬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청년운동사적관을 돌아보면서 조선의 청년동맹의 력사는 곧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빛나는 령도의 력사라는 것을 잘 알게 되였다. 세상에는 청년조직들이 많아도 조선의 청년동맹과 같이 장구한 기간 당과 수령의 직접적인 관심과 기대속에 강화발전되여온 강철같은 조직은 없다.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자라난 조선청년들이 정말 부럽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청년사업경험과 성과들을 적극 따라배우겠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 청년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힘있는 과시

속도전청년돌격대가 창립되여 근 350개의 중요대상공사 완공, 수많은 국가수훈자 배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구상을 맨 앞장에 서서 실현해나가는 정규화된 전투적인 로력부대이며 보람찬 실천투쟁속에서 청년들을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우는 훌륭한 혁명학교입니다.》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속에 속도전청년돌격대가 창립된 때로부터 지난 40여년간 청년돌격대원들은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수많은 중요대상건설을 맡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함으로써 조선청년의 기개를 만방에 시위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창립후 오늘까지 속도전청년돌격대에서는 전국각지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건설, 연 2 800여km에 달하는 새 철길건설과 10여개 구간의 철도전기화공사를 비롯하여 근 350개의 중요대상공사들을 맡아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로 훌륭히 일떠세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영예로운 첫 과업인 청양-마동, 회선-고인 철도전기화공사와 구장-팔원 새 철길건설을 단 몇달동안에 끝내고 승리의 보고를 올린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은 절사판쳘의 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며 당이 맡겨주는 어렵고 방대한 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하여 첫걸음부터 자기의 전투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 나라 철길건설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거창한 규모의 북부철길건설에서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은 수십m높이의 깔벼망을 까내고 로반을 닦았으며 해발 수천m의 산정에 불도젤을 통째로 끌어올려 작업속도를 보장하는 등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파감히 뚫고헤치며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대담한 공격전을 벌려 공사를 단 몇해동안에 완공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장엄한 진군길에서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은 단경대학생소년궁전, 김성주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청소년파의교양기지들을 건설하고 검덕광업련합기업소 제3선광장건설과 같은 산업건설도 진행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실현에 크게 기여하였다. 청년영웅도로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훌륭히 완공함으로써 당과 수령께 충직한 청년돌격대의 전투적기상과 투쟁기풍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청년돌격대원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청춘의 슬기와 담력을 힘있게 떨치였다.

만수대거리의 수백세대에 달하는 살림집건설을 맡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본보기건물로 일떠세우고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만점짜리 칭찬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은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은 그후에도 속도전청년돌격대의 기발이 나붓기는 건설장마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위훈을 련이어 창조하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을 안고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에도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려명거리건설을 비롯하여 수많은 대상건설에 참가하여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적극 추동하고 청년강국의 존엄과 기상을 시위하였다.

자랑찬 위훈으로 수놓아진 보람찬 투쟁의 나날에 속도전청년돌격대는 김일성훈장과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받았으며 연 4만 7 000여명이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였고 수많은 돌격대원들이 조선로동당원으로 자라났다.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언제나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은 앞으로도 돌격대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최후승리의 뱅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곧바로 내달릴것이며 이런 미더운 청년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최후승리의 날은 반드시 밝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리 건 일

정 론

위대한 조국을 위하여 청년들 앞으로!

8.28!

이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추억과 격정은 참으로 뜨겁다. 청년이라는 그 이름이 혁명과 투쟁의 거세찬 해불로 타오르게 된 이날과 더불어 얼마나 위대한 력사가 흘러왔던가.

어언 90돐기의 년륜이 아로새겨지고있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창립 90돐!

저 멀리 력사의 첫 기슭에 자기의 뿌리를 내린 때로부터 그렇듯 장구한 세월 오직 승리와 영광의 빛나는 한길만을 수놓아온 성스러운 자욱자욱을 어찌 이 글에 다 담을수 있으랴.

우리 수령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공청은 청년들의 조직적결속을 촉진시키고 핵심을 육성하며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데서 눈부신 역할을 하였다고 감회깊이 추억하신것처럼 공청창립, 이는 조선청년이라는 진정한 새 이름이 태여난 력사의 사변이였고 혁명의 전진에 힘과 기상을 억천만배로 더해준 억센 나래였다.

조선청년들의 값높은 위훈을 하나로 엮으면 그것은 그대로 위대한 당과 조국을 위하여 투쟁한 력사일것이다.

숭고한 그 애국의 의지가 더더욱 용암마냥 폭발한 이해의 8월이여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창립 90돐, 이 뜻깊은 시각을 맞이하는 조국과 인민의 감격은 그렇듯 뜨겁고 열렬한것이리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백만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천겹만겹으로 뭉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들로 억세게 자라난것은 우리의 더없는 긍지이고 자랑이며 커다란 승리입니다.》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경이적인 사변들이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격동시킨 7월에 이어 최후승리에로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막아보려는 원쑤들의 필사적인 발악이 천만의 분노를 자아내는 이 땅의 8월이다.

세계가 손에 땀을 쥐고 조선반도를 주시하는 이 시각, 행성을 진감하는 영웅조선의 모습에서 력사가 또다시 긍지높이 새기는것은 무엇인가.

위대한 당과 조국을 위하여!

우리 청년들이 심장의 불길을 용암마냥 치솟구며 산악같이 일떠섰다.

수도 평양의 어느 한 고급중학교에 펼쳐졌던 하나의 화폭을 전한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최후승리에로 향한 우리의 전진을 막아보려고 극악무도한 유엔《제재결의》를 또다시 조작해내였던 8월초, 약속이나 한듯이 학생청년들이 교정에 세워진 영웅의 반신상앞에 모여섰다.

당과 수령을 위해 꽃다운 청춘을 서슴없이 바친 병사,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심장에 박동친것은 무엇이였던가.

우리도 영웅처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목숨 바치리라.

그 마음을 안고 한명 또 한명 자리를 차고 달려나가 인민군대입대탄원서에 서명하는 학생청년들, 그들의 학습장과 일기장에는 여백이 있을지 몰라도 불같은 맹세로 채워지는 탄원서의 갈피에는 단 한줄의 공백도 없었다.

바로 이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발표된 직후 중구역 리철민고급중학교에 펼쳐졌던 우리 학생청년들의 모습이였다.

온 나라 청년들이 이런 모습으로 수령결사옹위의 전위, 조국수호의 총검으로 일떠섰다. 수도의 거리마다에는 우리 학생청년들이 부르는 전시가요가 높이 울려퍼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첫 3일동안에만도 백수십만명의 청년학생들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 탄원!

500만의 열혈청춘들이 심장과 심장으로 높이 터친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천만이 총폭탄되리라의 함성은 진정 수소탄의 뢰성을 능가하는 무서운 멸적의 불벼락이였다.

지구도 통채로 뒤흔들 그 기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더 뜨겁게 솟구쳐오르고있다. 저 멀리 북변의 백두전구로부터 수천척지하막장과 교정의 창가, 협동전야와 동서해의 어장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청년들이 있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구들에서 당중앙결사옹위, 조국사수의 불꽃튀는 돌격전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이것이 오늘 세계앞에 다시금 우뚝 솟아오른 조선청년의 군상이다.

어이하여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생명도 두렴없이 불굴의 한모습으로 결사전에 뛰어드는것이며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치는것인가.

조국은 나의 생명, 나의 어머니!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심장과 심장에 하나로 맥동치는 성스러운 애국의 의지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목소리만큼 뜨겁고 절절하게 들리는것은 아마도 없을것이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어머니이다. 이 세상 가장 따뜻한 품에 안아 참된 삶을 주고 자애로운 손길로 떠받들어 금방석에 정히 앉혀주는 조국은 정녕 우리 청년들의 위대한 어머니이다.

노도처럼 일떠선 우리 청년들 누구의 가슴에나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언제나 청년들을 나라의 꽃으로, 시대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믿고 내세워주며 《청년들을 사랑하라!》의 구호높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행복과 영광의 절정에 세워주는 고마운 조국.

조국은 어머니!

위대한 조국이 있고서야 청춘의 값높은 삶이 있고 행복과 미래도 있다는 진리를 조선청년들처럼 피어린 체험으로 절감한 청년들은 없을것이다.

나라를 빼앗겨 청춘도 무참히 짓밟혔던 그 세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망국노의 설움에 몸부림치며 이역의 하늘아래 억울하게 묻혔고 청춘의 꽃잎을 펼쳐보지도 못한채 비참하게 스러졌던가.

조국이 있고서야 청춘의 삶도 미래도 있다.

이 진리를 심장으로 체득하였기에 우리 청년들은 위대한 운명의 태양을 받들어 애국의 한길에서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웠고 앞장에서 달려왔다.

항일의 빨찌산 김대장을 진두에 모시고 조국해방성전에 용약 떨쳐나섰던 항일혁명투사들, 이 나라 한 시인이 노래했듯이 한줌 흙속에 조국을 싸안고 갔던 투사들, 한떨기 진달래꽃향기에 눈감고 조국을 그려본 녀대원들은 10대, 20대의 애젊은 청춘들이였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청년영웅 리수복의 이 피끓는 심장의 웨침은 1950년대 우리 청년들의 불타는 조국수호정신을 오늘도 후덥게 새겨준다.

제 키보다 더 긴 보병총을 메고 전선으로 달려나갔던 그날의 청년들, 공민증보다 조국수호의 사명감을 먼저 가슴에 지녔던 그 열혈의 애국청년들이 바로 세상을 놀래우는 20세기의 기적－보병총으로 원자탄을 이긴 조선의 영웅신화를 안아오지 않았던가.

오늘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한 전시대에는 만사람의 눈길을 끌며 나란히 전시되어있는 두 력사, 두 전통에 대한 증견자가 있다.

비행기사냥군조운동에서 위훈떨친 심철봉전투원이 가슴에 품고 싸웠던 공화국기발과 그곁에 전시되어있는 격추된 적비행사가 소지했던 《생명보호요청서》.

불과 불이 오고가는 결전장에서 《생명보호요청서》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만 그래도 마음의 안식이라도 찾을상싶어 그것을 몸에 품었을 비겁한 적비행사.

마치도 용사의 피가 스며들어 더욱 붉게 타는듯 한 공화국기와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울려나오는 비명소리가 들려오는듯 한 종이장이 말해주는 력사의 진리는 무엇인가.

돈을 위해 전장에 나선 아메리카의 고용병은 가슴에 조국을 안고 싸우는 용감한 조선청년을 이길수 없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를 이어 계속되는 승자와 패자의 력사, 달리는 될수 없는 승리와 패배의 요인을 본다.

참으로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자랑하고싶은 우리 청년들의 빛나는 애국의 력사, 값높은 애국의 위훈이다.

어이하여 조선청년들은 그처럼 용감하고 정의로우며 조국을 위한 한길에서 언제나 자랑찬 위훈의 력사만을 수놓아올수 있었던가.

태양의 아들딸!

조선청년의 삶의 긍지는 그렇게 온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지키고 옹위해온 조국은 바로 조선청년들의 삶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이였다.

만일 나에게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수 있는 행운이 오고 직업을 새롭게 선택할수 있는 권리가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길림시절처럼 단연코 청년사업에 몸을 잠글것이라고 하신 우리 수령님의 교시는 새길수록 뜨겁다.

그렇게 한평생 청년사업을 중시하시며 우리 청년들을 애국의 한길, 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이끌어주시고 그 삶을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사선천리 언덕에서도 우리 청년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신념의 강자들로 키워주시며 온 나라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 당이 강하고 군대가 강하고 청년들이 강하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으며 그 어떤 강적도 때려부실수 있다고 하시며 청년들을 혁명의 역군으로 키우는 사업에 억만자루 품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보람찬 삶은 또 한분의 운명의 태양을 모시여 세인의 부러움속에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이 땅우에 위대한 청년강국의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조선청년들의 삶과 위훈의 가장 빛나는 활무대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오늘 우리 청년들의 운명과 미래는 경애하는 원수님과 한피줄로 억세게 이어져있다. 우리 청년들을 한품에 안아 시대의 영웅들로, 창조의 전위들로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영상 우러르면 지금도 자애로운 음성 들려여온다.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에 참가하여 하늘땅을 울리며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수천명 열혈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천군만마를 얻은것처럼 무한한 힘과 용기가 솟구침을 온몸으로 느끼였으며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이 더욱 백배해졌다고 하신 우리 원수님.

우리 청년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새 세대들을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억세게 키우는 웅심깊은 사랑이며 혈연의 정으로 안아키우는 친어버이의 다심한 사랑이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자들이 받아안은 두벌의 솜옷, 여기에 깃든 친어버이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슴 뜨겁게 해준다.

지난해 1월 령하 30℃를 오르내리는 강추위를 이겨내며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던 청년건설자들은 두번째로 사랑의 솜옷을 받아안게 되였다. 불과 두달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지수도 친히 선정하여주시고 일군들에게 입혀도 보시며 마련하여주신 솜옷과 겨울내의로부터 털신발과 장갑, 담요에 이르기까지 은정어린 선물을 한가득 받아안았던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이였다.

그런데 또다시 받아안은 솜옷에는 어떤 사랑이 깃든것인가.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고 기뻐할 청년들의 밝은 모습과 함께 고향의 부모들과 마을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가보로 간직하고싶어 엄혹한 추위속에서도 입지 않고 간수했을수도 있을 청년들의 소중한 마음이 헤아려지시여 또다시 솜옷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태양의 청춘으로 값높은 삶을 빛내여갈 백두청춘들의 맹세는 그대로 기적의 산악으로 치솟았으니 사람들이여, 혁명의 성지 백두산기슭의 발전소언제를 무심히 보지 마시라.

이 세상 끝까지 우리 원수님 받들고 옹위할 조선청년들의 신념의 산악, 의지의 성새이다.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자!

이것이 오늘 500만 청년전위들의 심장에 활화산처럼 불길치는 맹세이고 의지이다.

수령결사옹위는 조선청년들의 최고의 애국, 최고의 영예이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수령결사옹위의 성스러운 언덕에서 우리를 지켜보고있는가.

죽어서도 영생하는 그들의 삶은 수령결사옹위의 길에 청춘의 가장 값높은 위훈이 있다는것을 천만의 심장에 뜨겁게 새겨준다.

백두산대국의 영웅청년들이여,

감히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노리는 극악무도한 원쑤들에게 자비를 모르는 증오와 복수의 불벼락을 퍼붓는 500만의 핵폭탄이 되자.

청년들은 조국의 기상, 우리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이다. 청년들이 들끓어야 조국이 들끓는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 곳 어디서나 만리마의 발구름소리가 강산을 진감하게 하고 시대를 격동시키는 새로운 창조와 위훈의 서사시가 탄생하게 하자.

자력자강의 진군길에서도 진취성이 강한 우리 청년들이 앞장에 서야 하고 원쑤들의 야만적인 제재의 포위환을 썩은 짚검불로 만드는 생산돌격전에서도 피끓는 우리 청년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의 앞장에도 우리 청년들이 서야 하고 온 사회에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의 향기가 더 짙게 풍기게 하는데서도 우리 청년들이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피끓는 청춘을 조국에 다 바쳐 시대와 혁명을 힘껏 떠밀어야 할 때이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국청사에 새겨온 전세대 청년들의 긍지높은 삶의 자욱우에 오늘 우리 시대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의 금별들이 또다시 수놓아지게 하자.

력사는 보게 되리라, 그리고 긍지높이 기억하리라.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자욱을 새긴 오늘의 우리 시대 청년영웅들의 모습을.

그 이름도 긍지높은 청년대강국의 주인공들인 조선청년들이여!

위대한 당과 조국을 위하여 우리의 청춘을 값있게 빛내이자.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시며 삶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

엄금명, 리철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몰도바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끼쉬뇨브

몰도바공화국 대통령

이고리 도돈각하

나는 몰도바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공동의 리익에 맞게 좋게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체106(2017)년 8월 27일 평양

선군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켜

은률광산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성교양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쇠돌생산으로 들끓는 현장에 나간 한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거룩한 첫 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장장 수십성상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신데 대하여 사실자료와 결부하여 실감있게 이야기하였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은 생산성과로 받들어갈 굳은 결의를 안고 날마다 혁신을 이룩해가고있다.

로동통신원 심윤섭

피끓는 청년들이 산악같이 일어나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을 단죄규탄, 전면배격하는 공화국정부성명이 발표되자마자 천군만마와도 같은 기상으로 원쑤격멸의 의지를 만방에 떨친 우리 청년들의 위력이야말로 몇십, 몇백개의 원자탄이나 수소탄에 비할바없는 최강의 힘이다.

이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리수복영웅처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우려는 조선청년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의 힘있는 과시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리수복영웅처럼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싸우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전화의 육탄영웅처럼

가렬한 전화의 나날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아낌없이 바친 리수복영웅의 고귀한 정신을 세대와 세대를 이어 조선청년들의 영원한 넋으로 심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정을 금할수 없다.

주체65(1976)년 10월 중순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수복영웅에 대하여 추억하시였다.

그의 시를 조용히 외우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그가 자기 시에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이라고 표현한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사회주의조국이라고 하시면서 리수복영웅은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이시라는것을 일찌기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간 진짜배기충신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마디마디 심오한 혁명철학이 담긴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일군들에게 불현듯 한해전 가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원도일대를 현지지도하시던 때의 일이 되살아났다.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에서 일군들이 모두 황홀경에 한껏 심취되여있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리수복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였다.

리수복영웅의 위훈이 깃들어있는 고지를 더듬으시는듯 편편히 뻗어간 수려한 산발너머 멀리로 사색깊은 시선을 보내고 계시던 그이께서는 무명고지, 영웅의 고지…라고 혼자말씀처럼 뇌이시였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수복영웅은 자기의 생을 조국의 운명과 련결시키고 조국의 래일을 위해 바친 삶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시에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준 참된 영웅이라고 한없는 사랑과 정을 담아 값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참된 삶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일찌기 깨닫고 애젊은 청춘을 바쳐 불멸의 위훈을 세운 그를 조국의 장한 아들로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주고 빛내여주시는 그이의 숭고한 세계는 일군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그때의 일을 격정속에 돌이켜보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수복영웅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치는것을 더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여겼으며 그것을 실천으로 보여준 우리 당의 참된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전형으로, 본보기로 내세우고 따라배우게 할데 대하여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피끓는 가슴으로 불뿜는 적의 화점을 막은 애젊은 청년영웅을 그토록 잊지 못해하시며 조선청년의 상징으로, 전형으로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새 세대들이 영웅의 고결한 넋과 빛나는 삶을 그대로 이어가게 하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의도에는 진정 이 나라 청년들에 대한 최대의 믿음과 기대가 어려있었다.

위대한 선군태양, 절세의 애국자를 모시여 우리의 새 세대들은 수천수만의 리수복으로 자라나리라. 청년영웅이라는 부름과 더불어 더욱 부강번영할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그려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운 격정으로 달아올랐다.

그렇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우리 청년들은 리수복영웅이 심장의 피끓이며 서슴없이 내달린 돌격로를 마음속으로 달리며 위대한 당을 따르는 길에 언제한번 주저와 동요를 몰랐다.

평범한 나날에나 시련의 나날에나 당과 수령을 결사보위하고 조국을 빛내이는 영웅적위훈으로 조선청년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온 세상에 떨치였다.

리수복영웅을 전형으로, 본보기로 내세워주시여 그의 고결한 정신과 풍모가 조선청년들의 고유한 모습으로 세세년년 빛을 뿌리게 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 믿음, 그 기대를 심장에 새기였기에 우리 청년들의 멸적의 기상은 하늘에 닿고 조국번영의 진격로를 앞장에서 열어가는 그 장한 모습 그리도 돋보이는것 아니랴.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또 한분의 희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청년강국의 력사는 영원히 줄기차게 흐를것이다.

본사기자 한영민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

중앙보고회에서 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전용남의 보고

오늘 우리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압박소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릴 멸적의 보복의지를 안고 조국수호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서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창립 90돐을 성대히 기념하고있습니다.

뜻깊은 이날을 맞이하는 온 나라 전체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웅적위훈과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온 조선청년운동의 성스러운 력사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주체청년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에 넘쳐있습니다.

동지들!

주체의 조선청년운동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령도사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력사상 처음으로 청년들을 혁명투쟁과 사회발전의 당당한 주력으로, 선봉대로 규정하시고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시며 주체의 청년운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였습니다.

《ㅌ.ㄷ》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의 참다운 시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날소년동맹과 반제청년동맹을 비롯한 혁명적청소년조직들을 내오고 수많은 학생청소년들과 로동청년, 농민청년들을 묶어세워 조직을 급속히 확대해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주체16(1927)년 8월 28일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과 여러 혁명조직들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청년혁명가들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시였습니다.

주체적인 청년조직의 결성을 선포하는 뜻깊은 모임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창립에 즈음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여 공청의 성격과 투쟁과업을 뚜렷이 밝혀주심으로써 각계각층 청년단체들과 대중단체들을 조직지도하여 우리 혁명과 청년운동발전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수 있는 전투적기치를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결성은 청년사업으로 혁명활동을 시작하시고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청년중시사상과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바로 이때로부터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전진하며 승승장구해나가는 주체의 청년운동의 참다운 시원이 열리게 되였습니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 결성됨으로써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가 확고히 실현되게 되였으며 일찌기 《ㅌ.ㄷ》에서 뿌리내린 주체혁명위업과 청년운동은 혁명적인 핵심들을 튼튼히 묶어세운 힘있는 전위조직을 가지고 줄기차게 발전하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혁명의 전위조직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조선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가는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 조국과 민족, 시대와 혁명앞에 이룩한 최대의 공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조선혁명의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신것입니다.

나라와 겨레의 운명이 생사기로에 놓이고 아직은 조국해방의 날을 기약조차 할수 없었던 혁명의 려명기에 투철한 혁명적신념과 고결한 의리로 《조선의 별》과 같은 수령송가를 창작보급하고 절세위인의 존함을 태양과 결부하여 부르며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재생의 유일한 은인, 조선혁명의 구심,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신것은 혁명의 전위조직인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만이 이룩할수 있는 력사적업적입니다.

공청의 열혈투사들은 겹음겹음 위험이 따르는 지하전구들과 항일의 격전장들마다에서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고 방패가 되여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하였으며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참다운 혁명가의 산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우리 나라에서 새형의 혁명적당과 진정한 인민의 무장력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수행하였습니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며 혁명대오의 조직사상적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당창건과 무장대오결성을 위한 골간들을 키워내고 광범한 반일대중단체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여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려나갔습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선봉적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항일혁명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조선의 수많은 열혈청년들이 혁명의 전위투사로 자라나고 수령을 중심으로 혁명적신념과 동지애로 굳게 뭉친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이룩되였으며 청년운동과 청년사업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이 창조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에 토대하여 해방후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도 대중적이며 유일적인 청년조직인 민주청년동맹을 창립하여 각계층의 광범한 청년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시였으며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민주청년동맹을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청년운동으로 강화발전되어온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청년중시정치에 의하여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가장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수령의 청년운동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로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심화발전시키시여 주체의 청년운동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사회주의청년운동의 본질과 그 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원칙, 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청년운동이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사회주의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주시였습니다.

일찌기 우리 청년동맹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수령의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소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개선강화하고 전국가적, 전사회적관심을 높이며 청년동맹건설과 활동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진행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여 청년동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시였습니다.

주체의 청년운동발전에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선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선청년운동을 수령의 청년운동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청년동맹을 영원히 수령님의 청년조직, 당의 청년조직으로 빛내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 창립된 8월 28일을 청년절로 제정하여주시고 새 세대 청년들이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이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우리 당은 청년들을 믿고 혁명을 한다고 하시며 당과 국가의 중대사들도 청년들에게 통채로 맡겨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보살피심이 있어 조선청년운동은 력사의 준엄한 폭풍우속에서도 자기의 혁명적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하며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주체의 청년운동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습니다.

혁명투쟁의 전기간 청년중시를 국사중의 국사로, 혁명의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청년문제해결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으며 우리 청년들을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끝없이 승승장구하는 주체의 청년운동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개척되고 백승의 한길만을 걸어온 주체의 조선청년운동은 오늘 청년사랑, 청년믿음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자기 발전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청년중시사상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청년중시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나가는 주체의 청년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기 위하여 커다란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십니다.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집대성한 청년운동사적판도 훌륭히 일떠세워주시고 청년동맹과 청년들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운동사를 불멸의 교과서로 삼고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명명하도록 하여주신것은 조선청년운동을 영원히 수령님과 장군님의 청년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드놓지 않는 기틀을 마련한 일대 사변으로서 우리 청년동맹과 청년들이 받아안은 최상최대의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이 앞당겨진다고 하시며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우리 청년들은 시대를 대표하는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의 창조자들로 자라나 오늘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가고있습니다.

참으로 조선청년운동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개척되고 발전되여온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이며 우리의 청년강국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믿음과 사랑속에 일떠선 김일성, 김정일청년강국입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온 주체청년운동의 자랑찬 력사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받드는 조선청년들의 열화같은 충정과 애국헌신으로 수놓아진 긍지높은 력사입니다.

우리 혁명의 1세대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손에 무장을 잡고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며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였습니다.

해방후 우리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청년대오로 굳게 뭉쳐 새 사회건설에서 드높은 애국열의와 청춘의 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가렬처절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움으로써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하고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습니다.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우리 청년들은 전후 어려운 시기에도 복구건설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웠으며 천리마를 타고 질풍같이 내달려 짧은 기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는 영웅조선의 기적을 안아왔습니다.

사회주의의 운명을 판가름하던 반제반미대결전의 준엄한 시기 우리 청년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 주체혁명의 명맥과 사회주의조국을 결사수호하였으며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환의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력사적전환기에 우리의 청년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믿음이면 지구도 들어올릴수 있다는 신념과 배짱을 지니고 엄혹한 자연과의 격전속에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훌륭히 일떠세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함으로써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새 세대 청년전위들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하였습니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거창하고 보람찬 투쟁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혁명적으로 교양되고 정신육체적으로 단련되였으며 당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룬 천군만마와도 같은 천하무적의 청년대군으로 자라났습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청년들은 있지만 우리 청년들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간직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며 고상한 도덕의리심과 강한 조직성, 규률성을 체질화한 혁명적이며 아름다운 청년들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세대를 이어오며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당과 수령, 조국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떠밀어온 우리 청년들의 영웅적투쟁과 위훈은 우리 혁명사와 주체의 청년강국건설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90년사를 돌이켜보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주체의 청년운동의 개척자, 건설자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사상을 가장 높은 경지에서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며 이 땅우에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삼가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앞에는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당의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위력을 힘있게 떨쳐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이것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른 우리 혁명과 청년운동발전의 성숙된 요구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동맹이 틀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혁명의 첫 세대 청년전위들의 고귀한 투쟁전통을 이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이 땅우에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 백두산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하겠습니다.

전체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조선청년운동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보위하는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참된 전사,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빛나게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수령결사옹위는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것은 우리 청년동맹과 청년들의 제일생명입니다.

모든 청년들은 한별만세를 소리높이 부르며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한 열혈의 공청원들처럼 우리 모두의 운명이시며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오늘의 김혁, 차광수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사상과 뜻과 정을 함께 하는 열혈의 동지가 되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로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당이 맡겨주는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훌륭히 해내는 결사관철의 기수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오른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발악적책동은 극도에 달하고있습니다.

조국보위의 주력군이며 선군혁명의 척후대인 청년들은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인 당의 선군혁명로선의 열렬한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여 누구나 다 영웅적조선인민군에 입대하여 사회주의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수호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투철한 주적관과 대적관념을 지니고 언제나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자위적국방공업을 억척으로 다지는데 적극 앞장섬으로써 반미최후대결전에서 조선청년들의 영웅적기개와 본때를 다시한번 힘있게 떨쳐야 하겠습니다.

모든 청년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은 군사적대결인 동시에 사상과 정신의 대결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견결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으로 적들의 비렬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리며 우리 내부에 이색적인 사상문화와 변태적인 생활양식이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계급진지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투철한 계급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세월을 주름잡는 오늘의 만리마속도창조의 격전장들은 피끓는 우리 청춘들의 활무대입니다.

모든 청년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과감한 공격정신과 청춘의 기백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해나가며 대중운동과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단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청년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안아오고 온 나라가 청년판으로 흥성거리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오늘날 국력경쟁은 과학기술경쟁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과 과학기술강국건설을 위한 사업에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며 학생청년들은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첨단과학기술로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유능한 혁명인재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청년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이며 혁명의 성지인 삼지연군을 사회주의조선의 본보기군, 표준군, 모범군으로 훌륭히 꾸리는데 적극 떨쳐나섬으로써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전투적위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온 나라를 푸른 숲 우거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고 청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영웅청년문화가 꽃펴나도록 하며 온 사회에 체육열풍을 일으키고 도덕기강을 세우는데 적극 앞장서나가는 사회주의문명의 창조자, 문명강국건설의 선봉대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동맹조직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기 위한 근본요구입니다.

모든 청년동맹조직들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 청년동맹을 명실공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청년조직, 조선로동당의 청년조직으로 튼튼히 꾸려나가며 청년들속에서 5대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모든 청년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청년동맹조직들은 동맹조직강화의 된바람을 일으켜 모든 동맹조직들을 조직성과 규률성, 단결력과 전투력이 강한 정예화된 청년조직으로 만들며 소년단사업에 큰 힘을 넣어 모든 소년단원들과 소년단조직들을 우리 당의 참된 소년근위대로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모든 청년동맹일군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는데서 맡고있는 책임과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왕성한 투지와 정열에 넘쳐 모든 사업을 청년식으로 해나가며 청년대중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유능한 청년혁명학교 교원이 되여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조국통일3대헌장과 6.15북남공동선언, 10.4선언을 조국통일의 대강으로 높이 들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앞장서나가며 우리 당의 대외정책적리념과 원칙을 구현하여 세계 진보적청년들과의 반제련대성, 친선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절대불변의 청년운동사상이 앞길을 밝혀주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과 조선청년들의 앞길에는 광활한 미래가 펼쳐져있으며 주체청년운동의 전도는 끝없이 밝고 양양합니다.

모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백두산청년강국의 휘황한 래일을 향하여 용기백배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우리 당의 위대한 청년중시사상 만세!

청춘의 값높은 칭호

청년절!

그 부름만 불러보아도 온몸에 젊음이 샘솟게 하는 청년들의 뜻깊은 명절이다.

이날을 맞게 되니 지난해 8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참석하시여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숭엄히 안겨온다.

세대를 이어오며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당과 수령, 조국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떠밀어온 청년들의 영웅적투쟁과 위훈은 우리 당의 력사와 주체의 청년강국건설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

만사람을 격동시킨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연설을 되새길수록 우리 당의 력사와 주체의 청년강국건설사에 아로새겨진 값높은 칭호들이 빛발쳐온다.

《청년전위》,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선봉대, 돌격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부대》…

세상에 청년들은 많고많아도 우리 청년들처럼 당과 수령이 안겨준 이처럼 고귀한 부름을 지니고 청춘을 빛내여가는 세대들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청년들이야말로 온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높이 떠받들어주고싶은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청년들이며 이런 미더운 청년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큰 복이고 조선의 자랑이며 바로 여기에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강대성과 찬란한 미래가 있습니다.》

청춘들의 값높은 칭호!

얼마나 성스러운 력사가 여기에 비껴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미래가 여기서 빛발치고있는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며 우리 청년들이 높이 발휘하여온 숭고한 정신과 자욱자욱 새겨온 빛나는 위훈이 이 긍지높은 칭호들에 어리여있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에서 언제나 태양을 옹위하는 위성이 되여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왔고 어머니 우리 당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그 품속에서 청춘의 아름다운 삶을 누려온 우리 청년들이 아니였던가.

성스러운 조선혁명이 막을 올리던 그 나날로부터 세기를 이어 우리 청년들을 혁명의 전위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역군으로 내세워주시여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힘있고 전도양양한 나라, 청년강국을 안아올리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경모의 정을 금할수 없다.

돌이켜보면 우리 청년들이 받아안은 칭호들은 이 땅의 청춘들이 세운 영웅적위훈에 대한 표창이기 전에 그들을 굳게 믿고 혁명과 건설의 전위대오로 내세워주신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발현이였다.

그 사랑,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항일의 열혈청춘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위하며 눈보라만리, 혈전만리를 꿋꿋이 헤쳤고 그처럼 준엄했던 고난의 시기에도 우리 청년들이 당에 대한 충정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청춘의 피끓는 열정으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웠다.

세기를 이어 변함없이 베풀어지는 그 믿음속에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영웅청년대군으로 자라나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부대로 자기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는것이다.

정녕 우리 청년들이 지닌 값높은 칭호들을 긍지높이 떠올리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가슴뜨거운 년대기가 되고 백두산청년강국의 자랑스러운 력사가 되며 우리 청년들이 누려갈 사회주의강국의 휘황찬란한 미래가 어리여온다.

그렇다. 우리 청년들이 지닌 값높은 칭호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이 땅의 청년들모두가 받아안은 가장 고귀한 믿음과 사랑의 증표이며 이 세상 그 누구도 지닐수 없는 청춘의 가장 큰 재부이다.

이 칭호를 인생의 최대의 영광으로, 고귀한 재부로 간직하고 혁명의 계주봉마냥 굳건히 이어가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이 있기에 청년강국의 력사는 더욱 줄기차게 흐를것이며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찬란할것이다.

본사기자 강철남

청년돌격정신으로 련속공격, 계속혁신

황해북도의 청년전위들

황해북도의 청년전위들이 선군시대 청년돌격정신으로 만리마대진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청년들을 믿고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가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도안의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모든 동맹원들이 오늘의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의 앞장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박력있게 전개해나갔다.

공업부문의 청년들이 자력갱생의 마치를 억세게 틀어쥐고 기술개건과 생산활성화를 위한 투쟁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기술혁신청년돌격대원들이 지칠줄 모르는 창조적지혜와 열정으로 중량에루각강련속조괴기의 자동절단조종체계 등 수십건의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였으며 정암세멘트공장, 사리원뜨락또르부속품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청년들이 580여건의 기술혁신안, 창의고안들을 내놓아 증산투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사리원방직공장의 청년들속에서 3년분, 2년분, 년간계획완수자들이 련이어 배출되였다.

농업부문의 청년들이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다.

곡산군 평암협동농장 청년작업반을 비롯하여 도안의 150여개 청년분조, 청년작업반들에서 우량품종과 선진영농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앞그루작물생산계획을 완수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송림시, 황주군 등의 많은 청년들이 떨쳐나 수로와 굴포, 보막이공사들을 새로 진행하고 수천개의 물원천을 정비보강하여 가물피해를 극복하였으며 신계, 연산군의 청년들이 집단적혁신으로 매일 풀베기전투계획을 120%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도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이 단숨에의 공격정신과 청춘의 활력으로 사리원가방공장을 일떠세운데 이어 연탄, 은파군의 청년돌격대원들도 단 몇달사이에 문화회관을 훌륭히 개건하고 양로원을 새로 건설하였다.

당이 준 담력과 불굴의 정신력으로 청년돌격대원들은 례성강청년5호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중요전투장마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적해군무력의 앞길에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장기적이고 첨예한 대결속에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이룩해나가자면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혁명무력, 국방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8월의 조선이 증오와 분노로 세차게 끓고있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작해낸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전면배격한다!

우리를 건드리는자 죽음을 면치 못한다!

뜻깊은 해군절을 맞이한 영웅적조선인민군 해병들의 가슴가슴도 백두산총대로 날강도 미제의 사상 최악의 제재압박과 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고야말 멸적의 보복의지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미제는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주체39(1950)년 7월 어느날 우리 나라의 어느 한 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리였다.

《공화국 해군력사에 영원히 기록될 영용한 ooo어뢰정대의 위훈, 미군순양함을 일거에 격침.

…

돌격명령은 내리였다.

드디여 해전사에 류례없는 가렬한 전투가 시작되였다. 4척의 어뢰정으로 순양함 2척, 구축함 1척과 대전한다는것은 근대해전의 상식을 초월하는것이다.

어뢰정의 기습에 의한 공격은 해전사에 드물지 않으나 주간 정면으로 적함에 돌입한다는것은 무모에 가까운 전법이기도 한것이다. 그러나 영웅무쌍한 우리 인민군 해군어뢰정들은 … 종래의 전법을 무시하고 용감하게도 적함에 돌입하였다. 그 대담성과 용감성은 우리 조국의 영예와 함께 길이 빛날것이다.》

주체57(1968)년 1월 23일 조선인민군 해병들은 미제의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를 나포하여 온 세계를 또다시 깜짝 놀래웠다.

그때를 회상하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인 공화국영웅 박인호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날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하던 조선인민군 해군 구잠함 35호 해병들은 오전 11시경 원산부근 려도로부터 가까운 수역에서 미제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를 발견하게 되였습니다. 당시 정치부함장이였던 저와 6명의 수색조성원들은 적함의 선미갑판우로 비호같이 뛰여올라 단 14분만에 놈들의 간첩선을 완전히 제압하고 80여명의 미국놈들을 몽땅 사로잡았습니다. 세계에 제노라 하는 해군이 많지만 우리 조선인민군 해군처럼 제국주의우두머리 미제의 해군함정을 전리품으로 깔고앉아있는 해군은 없습니다.》

력사는 무엇을 말해주고있는가.

언제인가 코를 꿰인채로 떠있는《푸에블로》호를 돌아본 한 외국인은 미제양키들은 뻐하면 《자유의 녀신상》과 세계《제1위》의 군사력이 아메리카합중국의 상징이라고 떠벌인다. 그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미국의 상징은 포로로 결박되여있는 이《푸에블로》호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그렇다. 영웅적조선인민군 해병들에게 나포되여 오도가도 못하고 서있는《푸에블로》호야말로 미국의 상징이고 앞으로의 운명이다.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오늘까지 우리에게서 된매를 맞고 녹아나기만 한것이 미제의 수치스러운 전통이라면 비대한 힘을 믿고 설쳐대는 미국을 길들마다 통쾌하게 족쳐대기만 한것이 영웅조선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는것을 침략자 미제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하다면 어길수 없는 이 승리의 전통을 오늘도 계승해나가고있는 우리 영웅적조선인민군 해병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것은 과연 무엇이런가.

어찌 잊을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군 해군의 창설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던 주체38(1949)년 8월 28일을.

이날 어뢰정 21호에 오르시여 함대의 첫 배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뢰정을 타는 해병들은 높은 공격정신을 소유하지 못하면 기술적준비가 아무리 잘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위력을 다 발휘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모든 해병들을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주체적인 해군전법이 있었기에 우리의 영용한 조선인민군 해병들은 창설된지 1년도 안되였지만 불과 4척의 어뢰정으로 《바다의 움직이는 섬》이라고 하던 미제 중순양함《볼티모》호를 대담무쌍한 어뢰돌격으로 일거에 격침시키고 경순양함 1척을 격파시키는것과 같은 세계해전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슬하에서 백승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빛내여온 우리의 해군무력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더욱더 장성강화되게 되였다.

바람세찬 항해길에도 오르시여 우리 해병들의 가슴마다에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

해병들은 의지가 강하고 용감하고 대담하여야 한다. 뒤이면 뒤일지언정 절대로 굽어들지 않는 기질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항공모함을 비롯한 큰 적함선도 대수롭지 않게 보고 대담하게 육박해들어가는 전투정신이 있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불굴의 정신을 안고 우리의 해병들은 적들의 도발로 하여 벌어진 여러차례의 서해해상전투때에도 달려드는 적함선들을 무자비하게 요정내여 원쑤들을 전률케 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따라 백승의 항로만을 수놓아온 주체의 해군무력은 오늘 또 한분의 백두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아래 그 얼마나 강해졌는가.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완전성공!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의 일대과시!

만리대공을 헤지르며 장쾌한 비행운을 끝없이 새겨가는 《북극성》탄도탄을 바라보시며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후련히 해주고있다.

이번 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하여 우리 해군의 수중작전능력이 비상히 강화되게 되였다. 이제는 남조선괴뢰들과 미제의 뒤통수에 아무때나 마음먹은대로 멸적의 비수를 꽂을수 있게 되였다.

그렇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난 우리의 해군무력은 언제나 백전백승한다.

하기에 영웅적조선인민군 해병들에게는 미제가 여기저기 끌고다니며 요란하게 저들의 군사적위력을 뽐내는 최신예항공모함들이 한갖 비대한 번데통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당의 출항명령을 기다린다!

만약 미제가 이 땅우에 침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아래 다지고다져온 무진막강한 위력을 총폭발시켜 미해군력사에 수치스러운 한페지를 또 한번 써주고 악의 총본산인 미국땅덩어리를 통째로 수장해버리자는것이 일당백해병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의 조선인민군 해군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해군무력건설사상과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오직 한길, 수령결사옹위, 원쑤격멸의 돌격침로를 따라 백전백승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갈것이다.

정영철

당의 령도따라 백두산청년대강국의 위용을 힘있게 떨치자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더욱 억세게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동맹에서는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 당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과 백두의 혁명정신을 뼈속깊이 심어주어 그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자력자강의 투사로 억세게 키우며 청년들이 삶며 일하는 그 어디에서나 백두의 넋과 기상이 나래치게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오늘 우리 청년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갈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를 안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력사적대진군에서 청년전위의 영웅적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돌격전에서 영웅청년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자!

이것이 바로 백두산청년대강국의 주인공들인 우리 청년들의 심장마다에서 터져오르는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더없이 앙양된 청년들의 열의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을 보다 드세차게 벌려나감으로써 그들모두를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당중앙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 만리마시대를 빛내이는 자력자강의 맹장들로 억세게 준비시켜나가고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우선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창립 9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조선청년운동사에 쌓아올리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청년들속에 더욱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위원회안의 일군들부터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문헌학습을 심도있게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청년사업을 철저히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청년동맹조직들에서 당이 제시한 5대교양을 청년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사업의 기본으로 틀어쥐고 실속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여 모든 청년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나가게 하였다.

올해 상반년에만도 화재치는 불길속에 서슴없이 뛰여들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온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들이 배출되고 수만명의 청년들이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 지성어린 물자들을 금수산태양궁전에 보내준 사실은 수령숭배, 수령옹위를 체질화한 우리 청년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뚜렷이 보여준다.

지난 8월초 전국의 수백명 청년동맹일군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회령시청년동맹위원회 일군들의 경험토론회와 보여주기, 참관사업은 청년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청년동맹이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또한 모든 청년들이 새로운 만리마속도창조로 전민총돌격전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당중앙이 그어준 승리의 화살표를 따라 초음속비행속도로 질풍같이 돌진해나가는 시대의 영웅, 기수가 되도록 하기 위한 선전선동의 포성을 힘있게 울려나가고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군들 모두가 선전원, 선동원이 되여 아래단위 조직들에 내려가 청년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만리마선구자대회가 진행되는 뜻깊은 올해 사회주의경쟁열풍,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킬데 대한 내용으로 정치사업자료들을 만들어 내려보내주고 1만여명의 청년동맹일군들이 청년들속에 들어가 직접 정치사업도 하고 이신작칙하면서 대중의 열의를 고조시켜나갔다.

한편 청년중앙예술선전대를 검덕광업련합기업소를 비롯한 100여개의 인민경제 중요부문들과 황해남도, 량강도, 평안남도의 50여개 농장들에 파견하여 청년들을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도록 하였다.

선전선동의 포성을 힘있게 울려나가는데서 청년동맹초급선전일군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중요하게 본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전국의 모범적인 청년동맹초급선전일군들을 대상으로 청년중앙회관에서 경험토론회를 조직하고 5대교양자료카드와 청년해설원가방을 비롯한 교양자료 및 수단들에 대한 보여주기사업도 의의있게 진행하였다.

이런 사업들은 수백만 청년들의 피끓는 심장마다에 시대의 영웅, 만리마선구자들로 튼튼히 준비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더욱 깊이 새겨주었다.

청년들속에서 집단적혁신운동이 적극 벌어지는 속에 상반년기간 100여대의 설비, 기대들이 새로 생산되거나 원상복구되여 《청년》호로 명명되였으며 수많은 청년들이 3년분, 2년분,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의 청년돌격대들과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오석산화강석광산,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경성은하피복공장,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청년들이 만리마에 박차를 가하며 전례없는 위훈을 창조해나감으로써 비약하는 조국에 활력을 더해주고있다.

이렇듯 청년동맹중앙위원회의 작전에 따라 진행되는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으로 전동맹이 끓고있으며 그 과정에 모든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키가 부쩍부쩍 크고있다.

지금 온 나라의 청년들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구실로 사상 최악의 반공화국제재압박과 도발책동에 미쳐날뛰는 미제와 적대세력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천백배의 보복의지를 안고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탄원하며 원쑤격멸의 의지를 가다듬고있다.

미제가 감히 움찔하기만 한다면 800만의 총폭탄이 되여 악의 제국, 날강도 미제의 운명을 단숨에 결딴내고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 철의 신념과 의지가 존엄높은 청년강국의 비상한 숨결로 높뛰고있다.

언제나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여들어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하는것은 우리 청년들의 본때이며 기질이다.

이런 사상과 신념의 강자, 당정책옹위전의 결사대인 청년대군이 있어 우리 조국은 언제나 금성철벽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한것이다.

본사기자 윤명철

조 국 과 청 춘

◇ 청년강국의 영웅적기개가 높이 떨쳐지고있다.

날강도 미제와의 판가리싸움에 온 나라 청년들이 산악같이 일떠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이 발표된 후 3일동안에만도 171만여명의 청년학생들이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탄원하였다.

반미대결전에서 제일근위병, 제일용사가 될 열망에 넘쳐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원쑤격멸의 성전에 떨쳐나설것을 선참으로 탄원한데 이어 평안북도의 공장, 기업소, 대학, 고급중학교들에서 20여만명의 청년학생들이 혁명의 총대를 틀어잡을것을 결의하였다. 조국수호정신으로 심장을 끓이며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한 청년들은 평양시, 황해북도, 함경북도를 비롯한 모든 도들에서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각지의 열혈청년들이 백년숙적 미제와의 최후결사전에 용약 떨쳐나선것은 당중앙과 운명을 같이하며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의 사상과 제도, 삶의 터전을 끝까지 사수하려는 투철한 조국수호정신의 발현으로서 청년강국의 영웅적기상의 힘있는 과시로 된다.

◇ 사회주의조국은 우리 청년들의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보위는 최대의 애국이고 청년들의 가장 성스러운 임무입니다.》

조국의 운명이자 청년들의 운명이며 조국의 존엄이자 청년들의 영예이다.

선군시대 청년들의 위훈의 높이, 빛나는 삶의 가치는 조국수호, 혁명보위의 길에 있다.

영광스러운 조선혁명의 력사에는 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친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이 별처럼 수놓아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피로써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던 나날에 수령결사옹위정신, 일심단결의 고귀한 전통을 창조한 혁명의 전위들이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열혈청년들이였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청춘을 서슴없이 바친 리수복영웅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숭고한것인가. 이 땅에 승리의 7.27을 안아온 수많은 영웅들중에 440여명이 민청원들이였다.

안변청년발전소와 청년영웅도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청춘을 빛나게 살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총포성없는 격전장에 과감히 뛰여들어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친 청년들의 위훈은 이 땅에 수풀처럼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마다에 력력히 어리여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우는것보다 더 값높은 삶은 없다.

◇ 청년들은 반미대결전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영웅신화를 창조해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기에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이 우리 청년들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청년들은 주체조선의 운명이고 미래이며 승리인 금수산태양궁전과 당중앙위원회를 제일 앞장에서 결사보위하는 천겹만겹의 성새, 방패가 되여야 한다.

결전의 시각이 온다면 500만 청년들 모두가 오늘의 빨찌산투사가 되고 오늘의 리수복, 강호영, 조군실이 되여 이 행성우에서 악의 제국을 송두리채 들어내야 한다.

청년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대고조격전장들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의 영웅신화로 적들의 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려야 한다.

최후의 승리는 위대한 당중앙이 펼쳐준 진격의 화살표따라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나아가는 조선청년들의것이다.

만발하는 청년미풍의 대화원

청년미풍선구자!

이 행성우에 나라도 많고 청년들도 많지만 이처럼 고상하게 불리우는 청년들이 과연 그 어디에 있는가.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이며 우리 혁명대오에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을 부어주는 청년미풍선구자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조국의 크나큰 자랑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청년들이야말로 온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높이 떠받들어주고싶은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청년들이며 이런 미더운 청년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큰 복이고 조선의 자랑이며 바로 여기에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강대성과 창창한 미래가 있습니다.》

잊을수 없다.

우리 원수님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수령결사옹위에 앞장선 청년들과 사회와 집단, 동지를 위하여 자기를 아낌없이 바치고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곳으로 탄원한 청년들 모두를 기특하고 대견해하시며 안아주고싶은 심정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절세의 위인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청년미풍선구자대렬은 끝없이 늘어나고있다.

이 성스러운 대오에는 뜻밖의 화재가 발생한 살림집에 서슴없이 뛰여들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온 량강도청년동맹위원회 부부장도 있고 갱이 붕락되는 순간 한몸을 바쳐 혁명동지를 구원한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 경둔탄광 리수복청년돌격대 대원이였던 오영재동무도 있다.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고성군인민위원회 산하단위로동자로 일하다가 읍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삼덕행청년도로소대로 자원진출하여 도로관리원이 된 차현심동무, 지난 3월 대학졸업증을 받아안고 산간지대학교들에로 자원진출한 강계시안의 15명의 사범대학, 교원대학졸업생들, 화상을 입은 한 로동자에게 자기들의 피부를 이식해준 천리마구역의 80여명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들, 《쌍둥이아버지》로 불리우는 벽성군 쌍암고급중학교 교원 리영재동무와 박천군 단산협동농장 축산작업반 농장원 김혁신동무, 황해북도인민병원 의사 송을희동무를 비롯하여 부모잃은 아이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된 청년들…

얼마나 많은 청춘들이 미풍선구자의 영예를 떨쳐가고있는것인가.

심심산중의 발전소건설장과 사회주의협동벌, 수산전선과 새로운 개발지들에 서슴없이 달려간 청년들, 원군길을 힘차게 걷는 청년들, 영예군인들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고 로병들의 친자식이 된 청년들…

이런 훌륭한 젊은이들, 이런 미더운 청년들이 있어 우리의 진군은 더욱 기세차고 사회주의대가정에는 따뜻한 정이 한껏 흘러넘치고있는것이 아닌가.

참으로 오늘 이 땅에는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가는 청년미풍선구자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었다.

그렇다.

어머니당의 따사로운 해빛속에 만발하는 청년미덕의 화원이 있어 내 조국이 그토록 아름답고 그 미래가 그토록 밝고 창창한것이 아닌가.

청춘들이여, 더욱더 아름다와지라.

위대한 태양이 빛나는 사회주의 내 나라를 고상한 미덕의 대화원으로 뒤덮게 하라.

본사기자 장철범

제29차 여름철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소식

우리 나라의 리현주선수 물에 뛰여들기경기에서 금메달 쟁취

우리 나라 선수들이 제29차 여름철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에서 계속 성과를 거두고있다.

리현주선수가 물에 뛰여들기 남자 10m고정판경기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였다.

훌륭한 경기성과로 조국을 빛내일 열의안고 그는 평시에 련마해온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27일에 진행된 결승경기에서 모든 동작들을 손색없이 수행하여 가장 높은 점수로 1위를 한 리현주선수에게 금메달이 수여되였다.

【조선중앙통신】

탄전에 새겨가는 청춘의 자서전

평안남도안의 탄광청년돌격대들의 투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강성국가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구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조국을 빛내이고 시대를 떨치는 청년영웅이 되여야 합니다.》

평안남도의 탄광들에는 수천척지하막장에서 피와 땀으로 청춘의 자서전을 새겨가고있는 청년돌격대원들이 있다.

원수님 믿음이면 지구도 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변변치 못한 경력을 가진 청년들이 돌격대를 뭇고 보답의 첫걸음을 뗐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천성-성산천자연흐름식배수갱건설에 참가한 평안남도청년돌격대려단 김영조청년돌격대원들의 심장은 세차게 고동쳤다.

원수님 믿음이면 지구도 든다.

이런 신념을 안고 돌격대원들모두가 그야말로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일하였다.

올해에 그들은 종전보다 2배나 높은 전투목표를 세우고 내달렸다.

그러던 어느날 이들이 일하는 작업장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되였다.

착암구멍으로 불시에 지하수가 터져나왔던것이다. 뿜어나오는 수압에 굴진공과 착암기가 동시에 수m밖으로 뿌려졌고 물은 삽시에 갱도에 차올랐다.

그러나 청년돌격대원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신 믿음을 소중히 새겨안고 결사전을 벌려 돌파구를 열어제꼈으며 년간 굴진계획을 8월 5일까지 끝냈다.

물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초소에 삶의 좌표를 정하고 애국헌신의 땀으로 위훈의 자욱을 새겨가는 송남청년탄광 김진청년돌격대원들의 심장은 무엇으로 뜨겁게 불타고있는것인가.

지난 5월 18일까지 년간 굴진계획을 수행한 김진청년돌격대원들이 청년절까지 2년분 굴진계획을 수행할 목표를 세우고 투쟁하던 어느날이였다.

미국의 날강도적인 제재책동에 철추를 내리는 공화국정부성명에 접한 청년돌격대원들은 조선인민군 입대를 탄원했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맹세로 심장을 끓이며 막장으로 들어갔다.

2전차갱 5사갱의 굴진막장에서 굴진작업을 할 때였다.

뜻하지 않은 일로 착암기가 동음을 멈추었다.

청년돌격대원들의 눈길이 일제히 대장 김동철동무에게 쏠렸다.

그는 함마를 들고나서며 말하였다.

《승냥이 미제를 족칠치는 심정으로 결사전을 벌립시다.》

청년돌격대원들모두가 호응해나섰다.

쩡-쩡-

굴진막장에 함마질소리가 힘있게 울려퍼졌다. 그것은 그대로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것을 체질화하고 어떤 난관앞에서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며 오직 전진만을 아는 이곳 김진청년돌격대원들의 뜨거운 심장의 박동소리였다.

바로 이런 결사관철의 투쟁기풍,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김진청년돌격대원들은 8월 19일까지 2년분 굴진계획을 수행하는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하였다.

《다음교대를 위하여!》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 가면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이 자랑하는 청년돌격대가 5개나 있다.

그가운데는 득장청년탄광 김혁청년돌격대도 있다.

종전에 비해 3배나 많은 굴진을 내밀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일하는 청년돌격대원들의 모습은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을 놀래웠다.

그보다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울려준것은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글발을 심장에 새기고 서로 돕고 이끌며 석탄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청년돌격대원들의 고상한 미풍이였다.

이들은 자기 맡은 과제를 끝내고도 막장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교대를 위하여 배수로정리와 버력처리작업을 끝내고 막장을 뜨는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집단주의미풍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청년절을 맞으며 3개의 청년돌격대가 년간 굴진계획을 수행하였다.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청춘의 자서전을 위훈으로 새겨가고있는 청년강국의 미더운 주인공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조국의 자랑이다.

본사기자 손영희

핵참화를 몰아오는 《동맹강화》책동

적대세력의 침략적도전에 대처한 우리의 초강경대응공세로 궁지에 몰린 남조선괴뢰들이 제 죽을줄도 모르고 분수없이 미국과의 《동맹강화》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집권자는 미국과의 그 무슨 《굳건한 동맹》을 토대로 한 《만반의 태세유지》에 대해 력설하였다. 괴뢰청와대와 외교부, 여야정객들도 저마끔 나서서 《북의 도발위협》이니 뭐니 하고 고아대면서 련일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동맹강화》를 떠들어대고있다.

특히 국방부 장관 송영무를 비롯한 괴뢰군부패거리들은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조치에 대해 남조선미국《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느니, 《경고한다.》느니 하는 악담질을 늘어놓으면서 《동맹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이니 뭐니 하는 가소로운 망발을 줴치고있다.

최근 남조선당국과 여당것들이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구실로 《싸드》발사대 4기의 추가배치를 결정한 저들의 처사에 대해 미국과의 《동맹》을 놓고볼 때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변명해나선것도 이자들이 상전과의 《동맹강화》를 위해 얼마나 역스럽게 놀아대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지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패거리들은 《중국의 눈치를 보아서는 절대로 안된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싸드〉배치를 즉각 완료해야 한다.》고 고아대고있다.

대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들의 처사에 남녘민심이 얼마나 격노하고있는지도 모르고 헤덤비는 남조선괴뢰들의 쓸개빠진 망동은 온 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괴뢰들이 조선반도에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긴박한 정세가 조성된 이 시각에도 친미사대에 환장하여 미국과의 《동맹강화》에 기를 쓰고 매달리는것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상전의 북침전쟁하수인노릇을 자청해나서는 용납 못할 매국반역행위이다.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최대의 민족사적과제로 나서고있다. 외세에 의해 지속되고있는 민족분렬의 비극의 력사, 치욕의 력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는데 있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동족이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강화》에 더욱 광기적으로 매달리고있다.

한피줄을 나눈 동족보다 외세를 중시하는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인 처사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치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남조선미국《동맹》은 철저한 예속동맹, 전쟁동맹이다.

패망한 일제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1945년 9월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한 미제는 그곳을 교두보로 하여 전조선은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고 꾀하였다. 이로부터 미국은 괴뢰들을 부추겨 각종 예속적인 조약과 협정들을 체결하고 그것을 통해 남조선을 북침전쟁동맹의 틀거리에 비끄러맸다. 미국이 괴뢰들과 《통수권이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괴뢰군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한 사실, 《조상방위조약》을 꾸며내여 남조선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마음대로 배치할 구실을 마련한 사실, 《행정협정》의 조작으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치외법권적존재로 만든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남조선을 《동맹》의 고삐로 단단히 틀어쥔 미국은 지난 수십년간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과 지배를 유지강화하면서 새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였다. 미제는 괴뢰들을 사촉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에로 내모는 한편 방대한 침략무력과 핵선제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대량적으로 끌어들이면서 북침전쟁준비를 다그쳤다. 미국이 《동맹》의 간판밑에 괴뢰들과 함께 벌려놓은 각종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조선반도정세를 항시적인 긴장상태에 몰아넣었다.

남조선미국《동맹》의 침략적정체는 박근혜역도의 집권하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괴뢰역도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무기한 연기하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유지비를 끌어올린것도,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를 꾸며내고 《싸드》배치를 결정한것도 모두 미국상전의 요구에 따른것이였다. 현실은 남조선미국《동맹》이야말로 철두철미 미국이 남조선의 군사적실권을 틀어쥐고 괴뢰들을 저들의 침략정책실현의 돌격대로, 전쟁대포밥으로 써먹기 위한 도구일뿐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력사적으로 괴뢰들이 미국상전에게 발라맞추며 《동맹》이 어쩌니저쩌니 하고 나발질하였지만 미국은 언제 한번 남조선의 추구들을 《동맹자》로 인정하고 대해준적이 없다. 미국에 있어서 남조선은 저들의 국익을 위해 제 마음대로 부려먹는 식민지노복, 북침전쟁에로 내몰기 위한 총알받이일뿐이다. 최근 트럼프가 우리 공화국에 대해 무분별한 《전쟁불사》광증을 드러내면서 《전쟁이 나도 조선반도에서 나고 수천명이 죽어도 거기서 죽는것》이라는 망발을 줴친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미국은 남조선인민들의 목숨같은것은 안중에도 없다. 미국이 조선반도유사시 세균전만행도 서슴지 않을 흉악한 제택밑에 남조선의 오산에 있는 미공군기지에 실험실을 설치하고 비밀리에 세균무기실험을 진행하고 지어 《공포의 백색가루》로 악명높은 탄저균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인것은 남조선인민들이야 죽든말든 북침야망만 실현하면 그만이라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본심을 잘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을 희생시켜 저들의 침략적리익을 실현하려고 발광하는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그 무슨 《동맹강화》를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지금 《대북선제타격》이니, 《예방전쟁》이니 하는 폭언들을 마구 줴치며 북침핵전쟁광풍을 일으키고있는 트럼프패거리들에 대해 세계가 우려를 금치 못하고 미국내에서까지 비난과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남조선집권자와 괴뢰군부패거리들이 미국과의 《동맹강화》에 대해 피대를 돋구고있는것은 미제호전계층이 마구 휘두르는 핵전쟁불뭉치에 기름을 끼얹는 실로 위험천만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더우기 미국이 남조선인민들의 목숨을 파리목숨만큼도 여기지 않으면서 조선반도에서 북침핵전쟁을 도발하려고 기승을 부리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추구하는것은 괴뢰집권세력이 친미사대에 얼마나 미쳐있는가 하는것을 여실히 폭로해주고있다.

미국과의 《동맹》이 초래할것이란 핵전쟁의 참화밖에 없다. 남조선의 각계층인민들이 미국과의 《동맹은 필요없다.》, 《미국은 이 땅에서 나가라.》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남조선당국이 《동맹강화》니 뭐니 하며 미국의 옷섶에 더욱 바싹 매달리는것은 우리 겨레를 미국의 핵전쟁제물로 섬겨바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특대범죄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민심과 온 민족의 요구를 외면하고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상전과의 《동맹강화》와 굴욕적인 대미추종행위에 계속 매달린다면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라 설 하

주제넘은 잡소리를 걷어치우라

얼마전 남조선집권자가 《취임 100일기자회견》이라는데서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재발완성을 제잡담 《북핵금지선》으로 정해놓는 어처구니없는 나발을 불어댔다. 밤낮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에 대해 《당면한 가장 큰 도전과 위협》이라고 떠들며 그 연장선우에서 이런 잡소리까지 한것이다.

남조선집권자가 우리의 초강경공세에 질겁하며 상전도 감히 내밸지 못하는 《북핵금지선》타령을 늘어놓은것은 대세의 흐름도 분간 못하고 뒤일을 감당해낼수도 없는 주제넘은 망동에 불과하다.

이런 제신머리없는 처사가 어찌 괴뢰정계를 소란케 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한쪽에서는 보수야당들과 《대북전문가》로 자처하는 떨거지들이 현재 북이 그 《금지선》을 훨씬 넘어섰는데도 집권자가 안일하게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을 한다고 비난을 퍼붓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과 보수패당의 눈치를 보는데 습관된 괴뢰당국과 여당패거리들이 론난이 확대되는것을 막기 위해 《북의 핵능력고도화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것저것 할것없이 다 제 처지도 모르는자들의 꼴사나운 추태가 아닐수 없다.

우리는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시험발사를 련이어 통쾌하게 성공시킴으로써 미국의 핵위협공갈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민족번영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수 있는 억척의 담보를 더욱 굳건히 마련해놓았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오랜 세월 우리 공화국을 위협해온 침략자 미제의 핵전쟁도발책동에 력사의 종지부를 찍고 최후승리의 직선침로를 열어놓은 거대한 사변이다. 그야말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공동으로 경축해마지 않을 전민족적인 일대 경사이다.

그런데 한갖 미국의 식민지괴뢰에 불과한자들이 온 겨레의 환희에 찬물을 끼얹으며 제법 그 무슨 《금지선》이라는것을 그어놓고 누구에게 훈시질을 하려 들고있으니 이야말로 세상웃음거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껏 다른 나라들을 핵으로 위협하며 오만하게 날뛰던 상전이 《미국본토의 주요대도시들에 대한 북의 핵공격가능성이 현실화되였다.》, 《미국본토가 북미싸일사거리안에 들었다.》고 아우성치며 《본토방위전략》에 대해 떠들지 않으면 안되는 판에 남조선집권자가 이처럼 동이 닿지 않는 수작만 늘어놓고있으니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우리가 루차 강조한바와 같이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공갈에 의해 산생된것으로서 철저히 조미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남조선당국은 여기에 끼여들어 가타부타할 아무런 명분도 자격도 없다.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에 대해 그 무슨 《금지선》따위를 운운하며 이러쿵저러쿵 나발질하는것자체가 어리석은자들의 분수없는 망동이다.

남조선괴뢰들이 계속 핵문제를 걸고 분수없이 놀아대다가는 박근혜역도처럼 비참한 운명에 처할수 있다.

현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판동은 우리가 국방력강화를 위한 자위적조치를 취할 때마다 누구보다 기겁하여 《규탄》이니, 《자멸》이니 하며 지랄발광하던 박근혜역적패당의 망동을 그대로 방불케 하고있다.

그토록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악을 박박 쓰던 박근혜역적패당이 과연 어떤 신세가 되였는가.

남조선당국이 지금처럼 친미사대와 반공화국대결책동에 계속 기를 쓰고 매여달린다면 박근혜역적패당이 당한것보다 더 파멸적인 운명밖에 차례질것이 없다.

충고하건대 남조선집권자는 늦게나마 민족의 힘과 존엄이 무엇이고 조선반도의 평화가 어떻게 지켜지는가를 깨달아야 한다.

괴뢰들이 지금처럼 대세의 흐름도 모르고 미국상전의 장단에 춤을 추며 우리 혁명무력의 총구앞에서 함부로 설쳐대다가는 단단히 졸경을 치르게 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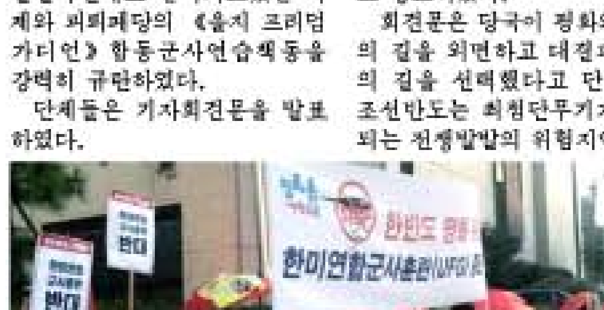
우리는 정의의 위업에 도전하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징벌할것이다.

허 영 민

남 조 선 단 체 들
북침전쟁연습을 반대하여 계속 투쟁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2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를 비롯한 대전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조선반도정세를 핵전쟁발발국면에로 몰아가고있는 미제와 괴뢰패당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회견문은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망발은 언제든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것을 드러낸것이라고 하면서 전쟁연습도중에 발생할수 있는 우발적충돌이 실전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회견문은 당국이 평화와 화해의 길을 외면하고 대결과 긴장의 길을 선택했다고 단죄하고 조선반도는 최첨단무기가 동원되는 전쟁발발의 위험지역이 되였다고 성토하였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대결이 아닌 대화를 요구한다고 강조하면서 회견문은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전쟁연습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들은 《전쟁훈련중단》, 《평화협상 시작하라!》 등의 구호판들을 들고 거리에서 항의시위를 벌리였다.

＊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개시한 첫날부터 미국대사관주변에서 항의행동을 전개하고있는 남조선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 25일에도 투쟁을 계속하였다.

참가자들은 초불을 상징한 빨간 우산과 《한미련합군사훈련반대》, 《한반도 평화위협 한미련합군사훈련 중단》 등의 구호판, 프랑카드들을 들고 시위행진을 하였다.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출발한 시위자들은 미국대사관앞을 지나 광화문주변까지 행진하며 자기들의 반미반전의지를 과시하였다.

시위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미국대사관가까이에서 집회를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선제공격을 가정한 《작전계획 5015》에 기초하여 감행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훈련이라고 규탄하였다.

국민이 지난 겨울 박근혜퇴진만이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초불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들은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대우개선대책을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최근 공공련대로동조합에 소속된 고용로동부 직원들이 청와대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남조선당국에 대우개선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현 《정부》가 국민을 현혹시키는 설계도라는것을 내놓았지만 그 그늘에서 자기들은 파업 37일째를 맞았다고 격분을 금치 못해하였다.

지난 3년동안 대우를 개선할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고 하면서 그들은 더이상 참을수 없어 경고파업과 선전물게시, 로조조끼착용, 태업 등 투쟁을 벌리였다고 언명하였다.

그들은 지난해에 2017년 인건비인상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참으며 기다려왔으나 당국이 현재까지도 대책을 세우지 않아 이 문제가 동결되였다고 개탄하였다.

25일까지 당국이 대우개선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무기한 단식롱성투쟁에 나설것이라고 그들은 경고하였다.

집회를 마친 그들은 《동일로동에 동일임금 지급하라!》, 《최소한의 복리후생 지급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거리를 행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간생지옥에 묻힌 불행한 운명

남조선이 온갖 사기와 협잡, 살인과 폭력이 판을 치고 패륜패덕이 성행하는 범죄의 땅이라는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끊임없이 뛰어오르는 물가와 늘어나는 빚더미, 날로 심해지는 생활난은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고달픔과 좌절감, 두려움과 비관만을 더해주고있으며 결국 그들이 범죄와 자살의 길을 택하게 하고있다.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의 썩은 세상,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사람 못살 남조선의 반인민적인 사회제도가 빚어낸 필연적현실이다.

그 일부를 보기로 하자.

자살을 부추기는 살인마들

남조선에서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고통속에서 헤여날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살도구들을 만들어 판매하는자들이 나타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인터네트에는 《고통없이 죽는 법, 100% 확실한 자살》이라는 글이 올랐다.

이 글을 올린자는 자기를 《저승사자》로 자처하면서 사람들의 자살을 도와주는 도구들에 대하여 광고하였다. 그리고 《자살세트》라고 하는 도구들을 차려놓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먹고있다.

나중에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자살도구들을 설치해주는가 하면 자살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자기의 거처지로 부르거나 《자살세트》를 배달해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이러한 자살도구를 팔아먹는 거간군들과 장사군들이 성행하고있는데 그로 하여 자살자수는 배로 증가하고있다. 제도를 잘못 만난탓에 남조선인민들이 강요당해야 하는 운명은 너무도 비참하다.

의사의 탈을 쓴 협잡배

얼마전 대구의 한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협잡치료를 해주고 엄청난 돈을 옭아낸 사실이 폭로되였다.

병원측의 죄악은 올해 2월 이 병원에서 5살 난 어린이가 사망하면서 드러났다.

이 병원 원장이라는자는 중병에 걸린 어린이의 부모에게 저들이 말기암환자도 완치시킬수 있다고 흰소리를 쳤다.

이 말에 속아넘어간 어린이의 부모는 가산까지 팔아서 엄청난 치료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현대적인 의료기술이 아니라 소금물관장과 단식을 비롯한 비과학적이며 비인간적인 수법을 적용하여 어린이가 끝내 고통속에 숨지게 하였다.

이 병원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은 환자가 그뿐이 아니라고 한다.

지난해에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 3명도 수백만원의 돈을 내고 치료를 받았으나 얼마 못가서 사망하였다.

더우기 심각한 문제로 되는것은 남조선에서 의사의 탈을 쓴 협잡배들이 이런 범죄행위를 감행하는것이 너무도 흔한 일로 되고있는 사실이다. 결과 병을 고쳐보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생죽음을 당하는 비극적현실이 도처에서 펼쳐지고있다.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동정이나 인정을 베풀지 못할지언정 그들의 마지막피방울마저 빨아내여 제 돈주머니를 채우는 패륜패덕의 악한들이 살판치는 남조선사회야말로 인간도살장,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이다.

끔찍한 어린이학대사건

《〈울면 입을 꿰매여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말에 어린이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닫았다. 어린이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실수를 할 때마다 매질이 가해졌다. 지어 각목과 파리채가 허공을 가르며 어린이들의 연약한 몸에 가닿았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려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끔찍한 어린이학대사건을 폭로한 기사의 한 대목이다.

올해 1월 남조선의 해당 기관에서 조사한데 의하면 어느 한 《어린이집》에서 일하고있는 8명의 보육원들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가혹한 학대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들은 어린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각목으로 때리고 속옷만 입힌채 계단에 몇시간동안 세워놓았으며 변기에 오줌을 잘못 싸는 어린이는 다른 어린이들앞에서 오줌을 먹게 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이 몰래 간식을 먹었다는 리유로 각목과 비자루 등으로 폭행하고 뜨거운 철판에 손을 대도록 하여 화상까지 입혔다.

한 보육원은 어린이들의 잘못을 고쳐준다고 하면서 가죽혁띠로 때리거나 주사바늘로 찌르는 등 수십차에 걸쳐 어린이들을 학대하였다.

이런 지옥같은 남조선사회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앞날도 내다보지 못하고 사회악속에 시들어가고있다. 그러니 이런 몸서리치는 사회에 과연 미래가 있을수 있겠는가.

본사기자 라 영 국

《란폭한 발언만 일삼는 불량배》
높아가는 반트럼프기운

최근 미국에서 《전쟁불사》망발을 마구 줴치며 돌아치는 트럼프에 대한 비난여론이 전례없이 고조되고있다. 미국정계인물들은 아무런 고려도 없이 신중치 못한 폭언들을 마구 내뱉는 트럼프의 광적인 처사를 강하게 비난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얼마전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성공에 질겁한 트럼프는 가소롭게도 그 무슨 《세계가 본적이 없는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극도의 전쟁광기를 부리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회 상원의 공화당과 민주당소속 의원들은 《령리하지 못한 처사》, 《악화된 정세에 기름을 붓는 격》 등으로 맹비난하면서 《미국의 안전을 해치는 발언에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트럼프에게 주어진 미군무력사용권한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들고일어나고있다. 민주당소속의 한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처사는 《현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질과 판단력측면에서 모자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라고 비난하였다. 공화당소속의 한 상원의원은 TV방송에 출연하여 《정부가 조선반도에서의 〈예방전쟁〉을 군사적방안의 하나로 생각하고있다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런 속에 민주당소속 하원의원 60여명은 트럼프의 사고를 정돈시켜주고 그가 언행을 자제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해나섰다. 전직 고위당국자들과 전문가들, 퇴역장교들도 트럼프를 《란폭한 발언만 일삼는 불량배》로 락인하면서 그에게 《핵가방》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 미국에서는 정치경력이 전혀 없고 무지한데다가 참모진들과 소통할줄도 모르는 트럼프때문에 미국이 일대 정치적혼란속에 빠져들고있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있다.

백악관과 미국무성관계자들, 외교안보전문가들은 대조선정책을 비롯한 트럼프의 정책들이 오락가락하고있다고 하면서 《조률을 거치지 않은 트럼프의 좌충우돌식정책결정에 정부관리들이 갈팡질팡하고있다.》, 《요즘 국무성은 파산직전에 이른 기업과 같다.》라고 개탄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뉴욕 타임스》, 《월 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미국의 언론들은 《공직경력이 없는 트럼프가 국제적위기에 어떻게 대응할것인지 의문스럽다.》, 《트럼프가 돌발적인 문제들을 내던지면 참모들은 뒤수습을 하느라고 땀을 뺀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참모들만 해도 14명이나 교체하였다.》고 하면서 트럼프의 즉흥적이고 마구잡이식의 처사를 로골적으로 비평하고있다.

《뉴욕 타임스》는 사설에서 《대통령의 조선반도핵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완전히 실패했다.》, 《북에 대해 허세를 부리는것을 당장 중단하고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탄핵과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들이 계속 벌어지고있다. 시위자들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쓴 간판을 들고 《트럼프를 타도하라.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등의 구호들을 웨치면서 트럼프를 당장 탄핵시킬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현재 미국에서 트럼프의 지지률은 날이 갈수록 곤두박질하고있는데 그것은 력대 미국대통령들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얼마전까지 백악관수석전략가로 있던자마저 《트럼프의 대통령직은 끝났다.》고 하면서 《그가 년내에 사임할것》이라고 단언하였다. 미국정계의 한 인물은 인터네트에 트럼프가 암살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글까지 올렸다.

이러한 사실들은 트럼프가 미국에서 각계의 환멸과 배척을 받고 날로 궁지에 몰리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세계의 여러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때없이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도발적인 망발들을 마구 줴쳐대는 트럼프는 미국을 망신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미쳐버리게 만들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철 남

보수통합의 개꿈을 꾸는 정치간상배들

어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이 집안싸움으로 날과 달을 보내는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최근 박근혜의 출당문제를 적극 들고나오고있다. 이자들은 지금 《보수혁신의 출발은 박근혜출당이다.》, 박근혜를 그대로 두고서는 《지방자치제선거를 치르기 어렵다.》고 하면서 역도년을 당에서 제명해버릴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얼마전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역도는 대구에서 진행된 어느 한 토론회에서 《〈대통령〉자리는 책임을 지는 자리》라느니, 《박근혜의 출당문제를 더는 미룰수 없다.》느니 하면서 감옥밥을 먹으며 산송장취급을 받고있는 박근혜에 대한 출당문제를 다시금 거론하였다.

홍준표가 친박계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놀음을 벌려 《자유한국당》안에서 자기의 지지기반을 다질 기회를 노려왔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박근혜역도의 출당문제를 공개적으로 주장한것은 처음이다.

하다면 어째서 홍준표가 박근혜역도의 출당문제를 정식 들고나왔는가 하는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것은 더이상 쓸모없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부담거리로 되는 박근혜역도를 제물로 만들고 그 졸개들을 청산하는 이른바 《당혁신》놀음으로 민심을 기만하여 보수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괴뢰보수패당은 다음해 6월에 있게 될 지방자치제선거와 관련하여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느니, 《지방자치제선거로부터 시작하여 〈정권〉을 되찾겠다.》느니 하고 고아대면서 벌써부터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그러나 박근혜역도와 한짝이 되여 온갖 죄악을 저지른 보수패거리들을 대하는 남조선민심은 차겁기 그지없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던 대구, 경상북도지역에서까지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울려나오고있는 형편이다.

더우기 보수통합을 실현하여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어떻게 하나 살길을 열어보려고 획책하고있는 홍준표일당이 《바른정당》것들에게 추파를 던지며 돌아오라고 꼬드기고있지만 친박계로부터 온갖 수모를 받다가 당에서 뛰쳐나간 《바른정당》것들이 응해나설리 만무하다.

이로부터 홍준표패당은 《혁신》이니 뭐니 하며 등돌린 민심을 회유하는 한편 박근혜를 출당시키고 당내의 친박계인물들을 내쫓는 《인적청산》놀음을 요란하게 벌려 땅바닥에 나딩구는 당지지률도 끌어올리고 《바른정당》을 끌어당겨 보수재집권의 중심세력으로 나서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현재 이자들은 《과거의 적폐와 완전히 인연을 끊어야 한다.》, 《국정파탄세력을 정리해야 희망이 보인다.》고 하면서 박근혜는 물론 당내의 친박세력을 청산하여 《바른정당》패거리들에게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올 명분을 주려 하고있다. 얼마전 홍준표역도는 《바른정당》의 행위가 괘씸하지만 그들을 버려서는 안된다느니 뭐니 하며 또다시 삵의 웃음을 지어보이였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패거리들이 《혁신》과 보수통합의 간판밑에 《바른정당》을 집어삼키고 보수세력의 주도권을 잡아 앞으로의 선거들에서 불순한 정치적야망을 실현하려고 발광하고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홍준표의 이런 속이 빤드름히 들여다보이는 술책을 《자유한국당》의 친박계와 《바른정당》것들이 용납하려 하지 않는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와 그 졸개들이 박근혜역도의 출당과 친박계청산에 팔걷고나선것으로 하여 괴뢰보수패거리들속에서 개싸움질이 벌어지고있다.

우선 《자유한국당》내의 친박계가 홍준표일당이 박근혜를 출당시키고 저들까지 몰아내려하는데 대해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친박계는 저들이 이렇게 맥없이 죽을수 없다고 하면서 홍준표의 기도를 파탄시킬 꿍꿍이판을 련일 벌리고있다.

친박계뿐이 아니다. 홍준표의 지지기반다지기에 불만을 품고있는 다른 세력들도 역도의 독단과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로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이자들은 《바른정당》의 거물급인물들을 《자유한국당》에 끌어들여 홍준표의 독단에 제동을 걸 계책까지 꾸미고있다.

한편 홍준표가 박근혜의 출당문제를 들고나오는것이 저들을 끌어당기기 위한 술책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는 《바른정당》패거리들은 《홍준표가 박근혜를 가지고 놀고있다.》, 《박근혜의 출당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이라고 비난조소하고있다. 지금 《바른정당》내에서는 박근혜의 출당과 친박계청산은 홍준표의 속임수에 불과한것이라고 하면서 《보수의 혁신과 통합은 누데기가 된 〈자유한국당〉의 해산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은 절대로 있을수 없다.》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있다.

보수통합의 개꿈을 꾸며 박근혜역도의 출당과 친박계청산문제를 놓고 벌리는 보수패거리들의 주도권쟁탈전은 초불민심에 대한 우롱이고 도전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친박이든 비박이든 매국과 반역에 뿌리를 둔 보수패거리들이야말로 한바리에 실어 당장 매장해버려야 할 력사의 쓰레기들임을 똑똑히 알고있다.

민심의 지향과 요구에는 아랑곳없이 권력욕에 환장하여 정쟁에만 미쳐날뛰는 괴뢰보수패거리들은 머지않아 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속에 완전히 망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리 성 호

당국의 《싸드》배치책동에 강력히 항의

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싸드》반대투쟁단체들과 주민들이 19일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남조선당국의 《싸드》배치책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현 《정부》가 《싸드》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고 하면서 《정부는 초불혁명의 정신을 기억하는가.》, 《적폐를 답습할것인지 청산할것인지 결단해야 한다.》고 들이대였다.

그들은 당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싸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싸드》는 북의 대륙간탄도미싸일에 전혀 대응 못하는 쓸모없는 무기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당국에 《싸드》발사대추가배치는 물론 《싸드》가동, 부지공사를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민심의 요구를 외면하고 《싸드》배치를 강행하려 한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불패의 군력으로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신 위대한 령장

이 행성의 정치구도와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다. 세계적인 군사강국,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보루로 우뚝 솟아오른 우리 조국이 국제정세흐름을 주도하고있다.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에도 힘자랑질을 마구 해대는 미국이 우리앞에서는 기가 꺾이여 어찌할바를 몰라 헤덤비고있다.

말그대로 주체조선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

우리 조국의 이 경이적인 현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주체49(1960)년 8월 25일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바로 이날이 있어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인류자주위업수행에서 력사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며 승리하여온 우리의 성스러운 선군혁명력사와 전통이 더욱 줄기차게 이어지게 되였다.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기상이 만방에 떨쳐지고 백두산대국의 천만년미래를 위한 억척의 기틀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총대로 헤쳐가신 선군혁명의 강행군길에는 세계적인 대정치풍파도 있었고 자주적근위병이 되느냐,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도 있었다. 그 엄혹한 시련의 시기 조국과 인민의 운명, 인류자주위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강철의 신념과 초인간적인 의지로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이 더욱 우심해지고 엄혹한 시련이 겹쌓일수록 혁명의 기둥이며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앞장에 내세우시고 천만군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우리의 사회주의와 인류자주위업, 세계평화를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여기에 얼마전 나이제리아주체철학연구소조 위원장 아바 싸디크 아부바크르가 한 말이 있다.

《인류자주위업에 쌓으신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업적중에서 가장 특출한것은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미국을 위시로 한 렬강중심의 낡은 세계정치구도에 파렬구를 내시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신것이다. 그이는 조미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인류에게 평화의 푸른 하늘을 펼쳐주신 대성인이시다.》

그렇다. 진보적인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모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지난 세기 90년대에 우리 장군님께서 어떻게 력사의 광풍을 단호히 쳐갈기고 사회주의를 위기에서 구원하시였는지, 어떻게 평화를 수호하시였는지를 잊지 않고있다.

돌이켜보면 그때는 우리 혁명에서 참으로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다. 일부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과 반전쟁에서의 《승리》에 도취된 미국은 조선에서 《사회주의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봉쇄, 군사적위협과 압력소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리였다. 어기에 자연재해까지 겹쳐들어 우리 나라는 심각한 경제적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원쑤들은 페제를 부르며 그 무슨 위기설에 대하여 떠들었다. 제나름대로의 《조선붕괴》시간표를 짜놓고 3개월인가, 3년인가 하면서 조선의 생존기한을 점쳐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위구심을 가지고 조선을 주시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84(1995)년 1월 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박솔초소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시찰을 단행하시여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조국수호의 최전방에 최고사령부를 두시고 철령과 오성산, 초도와 판문점을 비롯하여 험난한 전선길을 이어가시였다. 단순히 군부대들의 전투준비상태에 대한 시찰의 길이 아니였다. 미제와 끝까지 맞서싸워 조국과 인류자주위업의 운명을 구원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사생결단의 길이였다.

백두의 담력과 기상, 뛰어난 지략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로 미제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시며 치렬한 조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만을 안아오시였다.

현세기에 들어와 우리 나라를 핵선제공격대상명단에 공공연히 올려놓은 미국은 방대한 핵타격수단들을 동원하여 우리의 면전에서 핵전쟁연습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려놓았다. 조선반도에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허나 백두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적들의 강경에 초강경으로 맞받아나가시였다. 험악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가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것도 가질수 있다는 단호한 립장을 표명하도록 하시였다.

주체94(200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국의 로골화되는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핵억제력을 가지게 되였다는것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였다. 그 다음해에 우리 공화국은 지하핵시험을 통하여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들어섰다는것을 세계에 보여주였다.

우리 공화국은 강위력한 핵억제력으로 조국의 안전과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이룩하신 최대의 공적이다.

일찌기 무적의 군력강화를 선군혁명의 첫째가는 중대사로 내세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국방공업발전에 커다란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시였다. 아무리 엄혹한 시련이 닥쳐오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라의 방위력강화는 한시도 미룰수 없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애국헌신에 의하여 우리의 국방공업은 그 어떤 적들도 일격에 짓뭉개버릴수 있는 위력한 무장장비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병기창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지난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렬강들에 의해 란도질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나라는 핵보유국으로 솟구쳐올랐다.

세계정치구도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적지 않은 서방나라들이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국제정세전문가들은 이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선군령도를 떠나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명백히 조선은 서방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였다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에 커다란 파렬구가 났다.

미국 죠지타운종합대학의 한 박사는 《조선은 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완강히 도전할수 있는 군사적실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정면으로 돌파구를 낼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로 등장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우리 공화국이 그처럼 엄혹한 속에서도 단독으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맞서 주체의 사회주의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한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의 빛나는 승리이며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력사의 기적이고 불멸의 업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땅우에서는 선군태양의 성스러운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고있으며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은 백방으로 강화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세세년년 길이 빛날것이며 세계자주화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본사기자 리학남

조선은 세계적인 로케트강국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진행

선군절에 즈음하여 스위스, 방글라데슈, 오스트리아, 벌가리아에서 경축모임, 강연회,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가 3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선군조선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지도밑에 진행된 두차례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으로 하여 올해의 선군절은 보다 의의깊은 날로 된다.

조선은 세계적인 핵강국, 로케트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이것은 김정일대원수의 선군혁명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김정일대원수께서는 조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그이의 선군위업은 김정은최고령도자에 의하여 드팀없이 이어지고있다.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랑가일지부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1960년 8월 25일은 김정일각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날이다.

수십성상에 걸치는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령도는 조선의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륭성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놓았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조선을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나라의 군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였으며 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으시였다.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며 국제무대에서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미국이 조선에 대해서만은 감히 어쩌지 못하고있는것은 바로 이 나라가 무진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오스트리아 고오스트리아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청년소조성원들은 김정일각하께서 밝혀주신 선군혁명로선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게 하는 만능의 보검이다, 김정일각하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인민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면서 사회주의길을 꿋꿋이 걸어올수 있었다고 격찬하였다.

벌가리아 싸도보시 시장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은 조선의 현실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을 때 작은 나라도 위대한 나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이 자위적핵억제력을 강화해나가는것은 정정당당한 권리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가 유엔안보리사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되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문제를 긴급의제로 토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편지를 25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에게 보내였다.

편지는 지난 21일 미국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을지 프리덤 가디언 17》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데 대하여서와 이 연습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성격에 대하여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조선반도의 현 상황에서 이러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는것은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히스테리적망동이다.

모든 사태는 핵전쟁위협이 우리를 무력으로 타고앉으려는 흉심을 한사코 버리지 않고있는 미국으로부터 오고있으며 미국이야말로 평화파괴의 장본인이라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조선반도뿐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합동군사연습문제를 긴급의제로 토의할것을 유엔안보리사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유엔안보리사회가 이번에도 우리의 제소를 외면한다면 더이상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기구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미국의 꼭두각시, 정치적도구로 전락되였다는것을 스스로 폭로하는것으로 될것이다.

미국이 저들의 행태를 지켜볼것이라고 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으로 반공화국적대의사를 로골적으로 드러낸 이상 그에 강력히 대처해나가는것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권리이며 그로부터 초래될 파국적후과는 전적으로 미국이 책임지게 될것이다.

캄보쟈정부 미국의 비정부기구단체를 추방

캄보쟈외무 및 국제협조성이 23일 성명을 발표하여 자기 나라에 있는 미국의 비정부기구단체를 추방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미국의 재정적지원을 받고있는 《민족민주협회》가 등록도 하지 않고 캄보쟈법을 위반하면서 안하무인격으로 활동하여왔다고 폭로하였다.

그로부터 외무 및 국제협조성은 이 단체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1주일내로 그 성원들을 추방할것을 지시하였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미국의 비정부기구단체를 추방할데 대한 캄보쟈정부의 조치는 이 단체가 캄보쟈의 현 정부를 전복하려는 반정부세력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난것과 관련하여 취해졌다고 한다.

사 고

짐바브웨의 하라레교외에서 21일 통학뻐스가 화물자동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10명이 목숨을 잃고 13명이 부상당하였다.

같은 날 인디아의 오디샤주에서 2대의 자동차가 충돌하여 12명의 사상자가 났다.

이에 앞서 20일 타이의 챵마이주에서도 관광객들을 태운 뻐스와 화물자동차가 부딪쳐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제일주의》를 비난

도이췰란드수상 메르켈이 23일 한 연단에서 연설하면서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제창하는 《미국제일주의》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트럼프를 미국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미국제일주의》가 궁극에 가서는 미국에 손해를 가져다줄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일부 미국인들이 세계화라는것이 다른 나라들을 희생시킨 대가로 한 나라가 리익을 얻는것이라고 생각하고있다고 하면서 세계를 걱정하지 않고 순수 자기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미국은 결코 대국으로 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아프리카의 통합을 위해 노력할 립장 천명

가나대통령 나나 아쿠포-아도가 22일 외국방문과정에 아프리카의 정치경제적통합을 위해 적극 노력할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아프리카나라 지도자들이 대륙의 통합을 이룩할 정치적의지를 더욱 굳게 가지는것이 대륙인민들의 복리를 이룩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나는 아프리카동맹을 통하여 전대륙적인 통합을 실현하는데서 앞장설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카나다인들 트럼프가 조선반도 긴장격화의 장본인이라고 주장

카나다에서 대다수 주민들이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조선반도 긴장격화의 장본인이라고 주장하고있다.

23일에 발표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카나다주민의 84%가 트럼프의 전쟁폭언은 붙는 불에 키질하는 격이라고 하면서 트럼프에게는 조선반도긴장격화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있다. 또한 이 나라의 정당들인 자유당의 91%, 신민주당의 84%, 보수당의 77%가 트럼프의 최근폭언이 조선반도위기를 더욱 격화시킬뿐이라고 간주하고있다 한다.

이스라엘의 무인기개발책동

이스라엘이 무인기개발에 열을 올리고있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은 여러차례의 시험비행을 거친 신형무인기 《헤르메스 900》을 실전배비하였다.

이 무인기는 《헤르메스 450》의 개량형이라고 한다. 중동정세를 악화시키는 이스라엘의 무인기개발책동은 지역나라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경제 장성

타이에서 2.4분기에 경제장성률이 3.7%에 달하였다. 이것은 2013년 1.4분기이래 가장 높은 장성률이라고 한다. 21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농업증산노력

케니아에서 최근 알곡생산을 늘이고 식량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22일 정부는 비물을 저장하여 관개용수로 리용하기 위한 하부구조건설에 대한 투자를 늘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48만 3 760ac(에이커)의 농경지에 관개수망이 형성되여있다고 한다. 정부가 계획실현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산불피해방지노력

인도네시아에서 산불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산불이 확대되는것과 관련하여 22일 보르네오섬과 수마트라섬의 6개 주들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수많은 군대와 경찰, 소방대원들, 200여대의 비행기와 직승기를 진화작업에 동원하였다.

현재 이 나라의 538개소에서 산불이 일고있으며 물부족과 피해지역에로의 접근이 어려운 조건으로 진화작업이 지장을 받고있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10월까지 산불이 계속 확대될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소아마비예방접종사업

먄마의 라킨주에서 최근 소아마비예방접종캄빠니야가 진행되였다. 주의 400여곳에서 동시에 벌어진 5일간의 캄빠니야기간에 1만명이상의 5살미만 어린이들이 접종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까지 소아마비를 완전히 근절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한다.

여러 나라에서 테로반대투쟁

에짚트군대가 23일 시나이반도의 북부지역에서 반테로작전을 벌렸다. 작전과정에 8명의 무장악당을 소멸하고 6개의 무기고를 적발하였다.

또한 승용차를 비롯하여 테로분자들이 사용하던 통신기재들을 파괴하였다.

파키스탄에서 반테로투쟁을 강화하고있다.

최근 이 나라 군부가 밝힌데 의하면 7월 15일부터 서북부국경지역에서 벌어진 륙군과 공군의 반테로협동작전과정에 52명의 테로분자들이 소멸되고 대규모무기저장고가 적발되였다.

수리아에서 계속되는 미국의 민간인살륙만행

미국이 수리아에서 《반테로》의 미명하에 민간인살륙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22일 사나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이날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전투기들이 라까시의 주민지역들에 무차별적인 공습을 가하여 78명의 민간인들을 살해하였다.

통신은 이러한 공습으로 수리아에서 매일 수십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있다고 전하였다.

미국의 야수적인 민간인살륙만행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경제형편에 불만

알바니아인들이 나라의 경제형편에 불만을 표시하고있다.

23일 유럽부흥개발은행이 이 나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73%가 현재 나라의 경제형편이 4년전에 비해 더욱 악화되고있다고 대답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세계

인종차별과 내정간섭의 왕초

미국의 극악한 인종차별과 내정간섭행위에 대한 국제적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얼마전 미국 버지니아주의 샬러츠빌에서 소요가 일어났다. 시정부가 도시중심에 있는 남북전쟁시기 남부련합군사령관의 조각상을 철폐하기로 결정한것이 도화선으로 되였다. 백인우월주의자들이 조각상의 철폐가 백인의 력사와 문화에 대한 침해로 된다고 하면서 란동을 부리였다. 이것은 그대로 물리적충돌로 번져졌다. 백인 1명은 자동차를 몰고 시위대렬속으로 돌진하여 1명을 죽이고 19명을 부상시켰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버지니아주 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외신들이 전한데 의하면 소요가 일어난 곳의 대기중에는 최루가스냄새가 꽉 차있었다고 한다.

미국이 안고있는 고질적인 병집인 극심한 인종차별과 사회적모순의 폭발이다.

이를 놓고 미국인들자체도 인종차별은 미국에서 의연히 엄중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개탄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전문가들도 미국내 모순이 격화된 결과이다, 사회분렬의 상처가 계속 커질것이다, 만약 미국이 경제 및 사회정책을 제때에 조정하지 않는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문제는 사태를 바로 보고 평가하며 대책을 세워야 할 트럼프의 자세이다.

트럼프는 성명을 발표하여 량측에 다 책임이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백인우월주의자들을 두둔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것이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 할수 없이 트럼프가 재차 성명을 발표하였지만 분석가들은 그것을 립장의 변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첫 성명으로 인하여 초래된 부정적영향을 줄이자는 목적에서 한 한갖 눈가림수에 불과한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럴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시종일관하게 《미국제일주의》를 표방하고있다. 얼핏 보기에는 미국을 위한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국제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지난 세기의 파시즘을 릉가하는 미국판 나치즘이다. 《미국제일주의》의 구호밑에 히틀러의 인종주의정책을 본딴 반이주민정책이 강행되고있는것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백인우월주의자들이 샬러츠빌에서 인종차별을 주장하는 집회를 벌리고 그 과정에 공공연히 나치스의 상징물들을 내든것은 트럼프의 이러한 정치방식과 립장에 기인된것이라고 볼수 있다.

미국내에서 인종차별과 사회적모순이 격화되면서 트럼프의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와 집회가 벌어지고있다.

텍사스주의 휴스톤시에서 수천명의 시위참가자들이 《트럼프의 인종주의정책을 반대한다》는 구호판들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였다. 유타주소재지에서는 수많은 군중들이 《트럼프, 당신은 여기에 있을 자리가 없다. 나치스는 여기에 있을 자리가 없다.》, 《백인우월주의=(나치즘)=악마》, 《인종주의를 반대한다, 트럼프를 반대한다》 등의 프랑카드를 흔들면서 집회를 벌렸다.

유럽에서도 샬러츠빌사태를 놓고 트럼프가 취한 립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도이췰란드수상 대변인은 샬러츠빌사태는 자국수상과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과는 정반대이며 이번 극우익집회에서 나타난 행동들은 완전히 역겹다고 강조하였다. 사법상도 트럼프가 극우익무리의 폭력에 대해 얼버무리고 넘어가는것을 간과할수 없으며 신나치스에 의한 반유태주의와 인종주의를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도이췰란드 사회민주당 당수는 나치스에 단호히 맞서야 하겠지만 트럼프는 그 반대되는 행동을 선동하고있으며 폭력과 증오를 정시하고있다고 비판하였다.

유럽동맹은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를 규탄하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존중 등을 강조하는것으로써 트럼프를 공격해나섰다.

제 집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고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고있어 국제사회의 더 큰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최근 미국무성이 발표한 《종교자유에 관한 보고서》에 여러 나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바레인외무성은 보고서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미국은 그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제 나라 현실이나 더 정확히 리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란외무성 대변인은 보고서가 비현실적이며 편견적이라고 하면서 순수 정치적목적만을 추구하기 위해 꾸며진것이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인종적 및 종교적차별과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감,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과 경찰의 야수적인 탄압으로 얼룩진 미국의 한심한 상황을 렬거하면서 미국정부가 다른 나라들의 종교적자유상황을 시비할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종교적자유를 보장하며 특히 이슬람교도들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합법적이며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인종차별과 내정간섭의 왕초인 미국이 세계적인 규탄과 비난을 받는것은 당연하다.

본사기자 손소연

조롱거리로 된 침략전쟁장비들

군사기술적우세를 떠들어대는 미제의 침략전쟁장비들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되고있다.

지난 21일 아침 싱가포르주변수역에서 미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존 에스. 맥케인》호가 3만t급유조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구축함의 승조원 5명이 부상당하고 10명이 행방불명되였다. 미해군은 직승기, 함선들을 동원하여 행방불명자들에 대한 수색, 구조작업을 벌린다고 야단법석하였다. 구축함은 선미부분이 심히 파손된채 싱가포르항으로 이동하였다고 한다.

미해군의 주력구축함으로 알려져있는 《존 에스. 맥케인》호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작전수역으로 하는 미7함대에 소속되여 우리 공화국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첨단무장장비라고 으시대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좁다하게 돌아치더니 꼴좋게는 되였다.

이런 충돌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불과 두달전인 지난 6월에도 같은 급의 이지스구축함 《피츠제랄드》호가 일본의 시즈오까현앞바다에서 필리핀국적의 짐함수송선과 충돌하였다. 가관은 사고후 짐함수송선은 충돌흔적만 조금 났을뿐 아무런 인적, 물적피해도 없었는데 이지스구축함은 처참하게 파손되여 요꼬스까기지로 돌아갈 때에 끌배신세를 지지 않으면 안된것이다. 구축함 오른쪽배전의 가운데부분이 파손되고 동력계통이 파괴되였다. 3명의 미군승조원이 부상당하고 7명은 물고기밥이 되였다.

당시 인터네트홈페지들에서는 《이지스구축함이 상선을 이기지 못한다.》, 《미해군도 별게 아니다.》라고 깨고소해하는 야유, 조소가 쏟아져나왔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까지도 《리해할수 없는 사건》이라고 개탄하는 기사를 실었다.

십분 그럴수 있다.

이지스란 말은 옛 그리스신화에서 제우스가 자기의 딸 아테네에게 준 방패의 이름이다. 어떠한 무기도 뚫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공격과 방어체계를 다 갖추었다고 하는 이 함선을 두고 미국은 《꿈의 전투함》이라느니 뭐니 하고 굉장히 떠들어댔다. 구축함의 핵심장비인 고성능레이다가 1 000여km의 거리에 있는 임의의 모든 목표들을 탐지, 추적할수 있으며 여러개의 목표들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런데 이런 미해군의 주력함선이 쪽배도 아니고 커다란 수송선이 코앞에 나타날 때까지 포착하지 못하고있다가 충돌하여 심히 파손되였던것이다.

비단 이지스구축함뿐이 아니다.

미군이 최신형이라고 떠드는 무장장비들을 보면 제구실을 못하는것들이 적지 않다.

《가장 선진적인 전투기》라고 자랑하던 《F-35》스텔스전투기도 사고가 빈발하여 미군비행사들이 목숨을 내대고 타야 하는 오작품전투기로 락인되였다. 《오스프레이》수송기도 빈번한 추락사고로 송장만 만들어내는 우환거리로 치부되고있다.

미국의 군사기술적우세라는것은 바로 이렇다.

이따위 한심한것들을 들이밀며 세계를 제패해보겠다고 허세를 부리는 미국이야말로 정말 가련하다.

본사기자

세계과학기술발전의 이모저모

에네르기절약형걸음길

어느 한 나라에 있는 자그마한 거리에 에네르기절약형걸음길이 생겨났다.

이 걸음길은 에네르기를 생산하는 타일로 이루어져있는데 운동에네르기(걸음)를 전기로 전환시킬수 있다. 걸음길에 블루투스송신기들이 설치되여있어 보행자들은 지능형손전화기의 응용프로그람을 통하여 걸음길과 호상《교제》할수 있다. 즉 걸음길에서 자기들의 걸음이 어떻게 전기로 전환되는가를 지능형손전화기를 통하여 볼수 있다.

타일의 크기는 45cm×60cm이다. 이 타일들을 밟으며 걸음을 한번 내짚을 때 생산되는 전기는 7W정도이다. 생산된 전기의 5%는 타일조명에, 95%는 축전지로 보내여지거나 다른 용도에 쓰인다.

짐함형태의 이동식도시《농장》

최근년간 대도시들에서는 정원과 터밭이 더욱 늘어나고있다. 살림집의 지붕들에 밭들이 생겨나고 소형온실들이 건설되고있다.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수억명이 도시환경에서 남새를 재배하고있다고 한다.

그러나 도시의 제한된 환경은 새로운 도시농업방법을 요구하고있다. 그에 따라 창안된것이 짐함형태의 이동식도시《농장》이다.

짐함의 길이는 13m이고 남새와 약초재배에 필요한 이랑들이 있는 선반들을 짐함에 설치할수 있으며 습도와 조명은 수동으로 조절할수 있다.

이동식도시《농장》에 필요한것은 물과 전기뿐이므로 식당이나 상점, 살림집주변에 자리잡을수 있으며 다른 도시로 쉽게 이동할수 있다.

개발측은 년간에 일반온실에서보다 3배나 넘는 량의 부루를 생산할수 있으며 사철 수확을 거둘수 있고 남새와 약초의 생육기일을 단축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본사기자

ㄱ-71136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우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